

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28.16	↓ 코스닥	661.33
	(-6.99)		(-9.61)
↑ 금리 (연이자율)	2.620	↑ 환율 (원/달러)	1426.00
	(+0.017)		(+7.90)



## 탄핵 국면 장기화... 증시·환율·소비 韓경제 곳곳 비상

외국인 매도세에 증시 흔들  
3거래일간 1조335억 순매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지속  
소매판매 10분기 연속 감소  
수출·투자도 불확실성 확대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국면 장기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추진 시기보다 수출이 부진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성장, 내수부진, 경기침체가 겹쳐 대한민국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3거래일(12월 4~6일) 동안 외국인인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35억 원 어치를 팔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사태 전인 지난 3일 외국인은 5655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매도세로 돌아섰다.

### ◆尹 대통령 탄핵안 무효... 불확실성 커져

문제는 이 같은 탄핵 국면이 장기화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 전날인 2004년 3월 8일, 코스피지수는 900으로 장을 마쳤다. 이후 안건이



최상목 경제팀 합동성명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의결된 12일 코스피 종가는 849로 5.67% 하락했고, 탄핵심판 선고일(기각)인 2004년 5월 14일에는 768로 발의 전날과 비교해 14.7% 떨어졌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발의 전날인 2016년 12월 2일 코스피가 1971을 기록했다. 이후 탄핵안 의결일에는 코스피가 2025로 2.74% 오르고, 탄핵심판 선고일(인용)에는 2097로 발의 전날과 비교해 6.39% 상승했다. 대통령에 따라 코스피의 방향은 달랐지만 변동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의결이 여당(국민의힘) 불참으로 무효화된 것과 관련해 경제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정국안정 방안을 당(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불확실성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을 부추겨 코스피를 떨어뜨리고 원·달러 환율을 고점(원화 가치 하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계엄사태'발 환율 상승...경기침체 우려 ↑

특히 끝없이 오르는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기준 달러당 원화 값은 1419.2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전인 11월 1일 1379.4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당선이 확정된 이후(11월 6일) 1396.2원으로 오르다가 12월 2일 1401.3원으로 1400원대를 넘어섰다. 이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달러당 원화 값은 12월 3일 1402.9원에서 12월 6일 1419.2원으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준다. 기업에 미치는 영

향은 고스란히 상품의 가격에 반영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2020년=100)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9% 하락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4~6월·-0.2%)에 꺾이기 시작한 이후 10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장기간 기록이다.

수출도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는 타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 2기행정부가 세워지기 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기에 탄핵 국면이 이어지면서 신규 투자계획은 고사하고 기존 계획마저 보류할 우려가 커진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대내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교역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 성장을 예상치를 1.7%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2.0%)을 밀도는 수치로 지난 9월 2.2%보다 0.5%포인트(p)나 낮아졌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퇴진 추진... 국정안정 힘쓸것”

한동훈·한덕수 대국민 공동담화문  
국무총리와 주1회 이상 정례회동  
상식적 소통 통해 경제대책 마련  
예산안·민생법안 통과 野에 부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 다음날인 8일, 공동담화문 발표를 통해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고 당정이 합심해 공백없는 국정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가 필요하다고 이날 정국 수습방안을 발표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

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국무총리와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을 통해 국정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동훈 대표는 “지

난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는 2시간30분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행할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와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야당에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면에 계속> /서예진·박태웅 기자 syj@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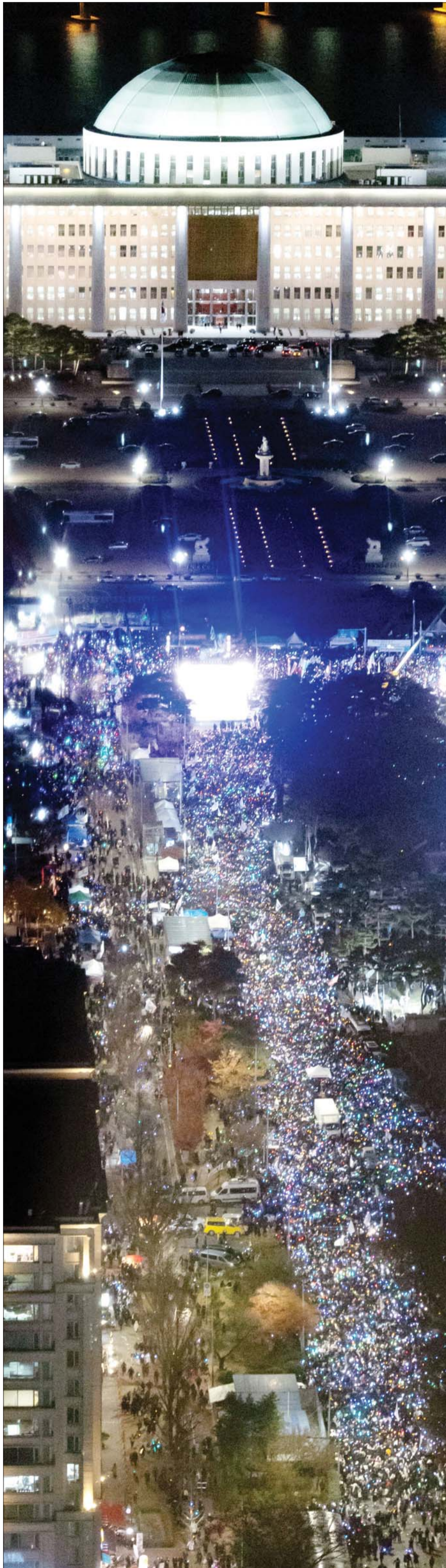


▲ 김동연 “한덕수·한동훈 담화문 시간 끌기용에 불과”  
▲ 야당 “尹 대통령, 군 통수권 박탈해야” /사진 뉴시스

▲ ‘사의 표명’ 추경호 재신임될까... 계파 갈등 수면 위로  
▲ 탄핵 표결 무산에 민심 부글... 시민단체 규탄 잇따라



▲ 조국 “한동훈·한총리 ‘2차 쿠데타’ 도모... 탄핵 추진” /사진 뉴시스  
▲ 탄핵 앞둔 이상민 자진 사퇴... “국민께 송구”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로  
확 차있다. /뉴스

# 특수본 “尹 대통령, 절차상 피의자”

박세현 특수본부장 브리핑  
김용현 전 장관 수사 본격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수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8일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인 중대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특수본은 지난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출범했다. 전날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새벽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약 6시간 넘는 심야 조사 후 긴급체포됐다. 현재는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상태며, 검찰은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수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중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각 단계에서 어떤 입장인지는 다 알려진 상황”이라며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를 위해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지속적으로 조율했다. 그러던 중 오늘 새벽에 본인이 자진 출석했고,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체했다면 경위와 이유를 확인해서 관련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비상계엄을 발표한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

련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도 지난 2020년 경찰로 이관된 후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사실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내란죄가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규훈 기자·뉴스 ch9720@metroseoul.co.kr

## 與野도 반발… “논의 필요” vs “수사 대상”

(與)

(野)

>> 1면 ‘한동훈·한덕수 대국민’서 계속

국민의힘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  
민주당 “위헌통치 허용되지 않아”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한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나”라며 “한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권력 장악의 기회로 여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당에 권한을 위임했지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대상’일 뿐,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정국수습방안을 발표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국정운영의 중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 윤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 상태로 끌고가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본 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 총리를 두고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규정지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제,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밖에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이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로”라며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 기구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론 내에서도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문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친윤(친윤석열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있는 조기 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레아만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발언은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이 당의 논의과정이 결여돼 당내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예진·박태홍 기자syj@

# 대통령 2선 후퇴 가시화... '책임총리' 합법 여부 관건

헌법상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  
권력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우원식 의장 "명백한 위헌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직무정지는 모면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해졌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하며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헌법 상에서 책임총리가 가능한지 여부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총리 공동 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대통령 탄핵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 86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 뿐이다.

여기에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즉 헌법에 규정되

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외교권 등이 총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헌법상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발표는 정치권의 반발을 사,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상태로 끌고가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본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 "현행 체제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소추안 통과 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한덕수 총리 국무위원 간담회 주제 "국정 공백 없도록 혼신의 노력"

비공개 진행... 오세훈 시장 등 참석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삶 지켜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에 공백이 발생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당초 임시 국무회의로 정했다가 시작 40분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하고 비공개로 했다.

총리실은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을 관련 국무위원 간 논의한다는 점에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의 경우 총리의 모두발언이 공개되지만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한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총리실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총리의 주요 발언과 회의 논의 내용들을 전했다.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며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이

'국군통수권, 외교·안보, 인사권을 총리가 맡을 수 있다고 보느냐', '책임총리제 가능하다고 보느냐', '대통령 당부 있었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국무위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모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안부 차관이 대참했다.

약 40분간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은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대행 위험성 지적에 대한 입장', '대통령 당부 메시지가 있었는지', '간담회에서 책임총리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입을 굳게 닫았다.

한 관계자는 "상황을 공유하고,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각 부처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챙기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책임총리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나올 건 아니고"라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국정대행 구상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직무대행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뉴시스

노사상생 선도하는  
현장 중심 전문기관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와 기업을 잇는 협력의 나침반

# 노사발전재단이

## 2025년에도

노 사 상 생 으로

### 가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노사상생을 선도하는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 전문기관,  
노사발전재단의 문을 두드려보십시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6,8,10층), 02-6021-1000

### 여야 대치 격화, 길 잃은 경제정책

# 예산안·민생법안 ‘마비’

#### 멈춰선 국회, 방치된 민생

금투세·가상자산 과세유예 불투명 고준위 방폐장법 등 법안 모두 뒷전 아동수당 등 기본 예산만 가능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의 후폭풍으로 국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모두 멈춰섰다.

계엄 선포 전만 하더라도, 야당이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감액분(4조1000억원)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여야가 협상을 완료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언제 다시 논의될지 알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예산안,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를 촉구했다. 당정은 감액된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는 야당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감액 예산안 처리나 준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감액 예산안이나 준예산을 수단으로 당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7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예산, 미래준비 예산, 경기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을 내주시면 된다.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관련 본회의를 마친 뒤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거쳐 본회의 통과를 노리는 민생경제 법안들도 ‘올스톱’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도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가 실시된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지난 정기국회에 열렸던 본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 종사자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배제’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외에도,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전력망 확충법’,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 등도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야당 주도로 추진하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도 멈춰서게 됐다.

12월 들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위원을 구성,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가동을 잠시 멈춘 상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정국 혼란 직격탄... 尹정부 ‘4+1 개혁’ 동력 상실

의료·교육·노동·연금 개혁, 좌초 위기 사의 줄이든 국무위원들, 국정운영 불능

비상계엄 사태와 야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상정 등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및 저출생 대응 정책(4+1 개혁)은 사실상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모면했어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195명(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김예지·김상욱 의원 포함)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가까스로 탄핵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샀고, 이후 내각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명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1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의

정갈등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의료계와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특히 의료계는 포고령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5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중단된 데 이어 의료계와 대화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및 탄핵 여파로 2025년도 예산안 논의마저 멈추면서 의료개혁 예산 역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당장 2025학년도에는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2026년도부터는 예년 수준(3058명)으로 모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대 교수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마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개혁안도 폐기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 연금특위를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논의는 어려워졌다. /서예진 기자 syj@

## 정치 불안에 내수 한파까지... 유통가, 사라진 연말 대목

소비 심리 위축에 소비자 발길 끊겨 고환율로 식품업계 원자재 부담 가중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유통·식품·호텔 업계로 번지고 있다.

통상 연말은 유통업계의 대목으로 꼽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내수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유통업계의 전반적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더해져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사태의 악영향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

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탄핵 정국 당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이슈가 이어진 2016년 말~2017년 3월까지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줄곧 기준선 100 이하로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점 100보다 높으면 낙관론이, 낮으면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본다. 당시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세로 돌아선 기점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였으며, 정상화가 되기까지 세 달이 걸렸다.

2016년 당시 연말 정기세일을 열었음에도 롯데백화점은 전년 행사 대비 매출이 0.7% 감소했고 현대백화점은 1.2% 줄어들었다. 통상 유통업계에서는 크리스마스 등의 연말 쇼핑 시즌이 있는 4분기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대목으로 꼽힌다.

이에 주요 백화점들은 정상영업을 유지하되, 정치적 혼란이 소비자 심리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집회·시위가 대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주차 관리와 보안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경찰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며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주변 상황을 점검 중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현재까지는 영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비책을 검토 중이다.

e커머스·물류업계 역시 정국 불안이 소비자 심리 위축과 배송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 혼잡과 택배 기사 이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편의점 업계도 주요 도시에서 집회·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집회 지역 인근 점포에서는 생수, 방한용품, 즉석 조리식품 등 필수 물품의 안정적 수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환율 수준을 1450원대로 보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었지만, 국정 혼란에 따라 원화 환율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세상을 바꾸는 금융

가족들을 위한 준비부터

# 시니어의 모든 행복이 쭉~ 이어지도록

## #3 상속 설계 편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손주를 보면 볼수록

해주고 싶은 것도 더 커지는  
당신의 마음을 알기에

전문가들의 꼼꼼한 자산 컨설팅부터  
진심을 온전히 전하는 상속 설계까지

행복한 상속, 시작부터 끝까지  
KB가 함께하겠습니다

시니어의 인생을 더 든든하게  
**Korea Best**  
KB금융그룹

가업승계까지

[ KB위대한유산 ]

[ KB GOLD&WISE the FIRST 패밀리오피스 ]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약관 및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액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유언대용신탁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대한유산서비스를 통해 신탁계약 체결 시 기본보수, 운용자산 별 관리(운용)보수 및 집행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073호(2024.10.21), 유효기간 2024.10.21~2025.09.30까지

KB국민은행 | KB손해보험 | KB라이프

KB증권 | KB국민카드 |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터시스템

**\*b KB 금융그룹**

# 기재부 “대외신인도·산업계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것”

최상목 부총리, 비상국무회의 주재 해외투자자 대상 韓경제 설명회 개최  
美 신정부 따른 대외 불확실성 대응  
예산안 내년 초부터 정상 집행돼야  
금투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논의 요청

기획재정부가 8일 국가 대외신인도의 하락 가능성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상 시국 속에 정부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면담 및 해외투자자 상대 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부처합동 성명문을 통해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서 동료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룸을 호명하고 있다. /뉴시스

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과전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1월 임기 시작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

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 일정도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다.

최 부총리는 합동성명 발표 직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비트코인, ‘금’ 경쟁자 되나… 내년엔 20만달러 기록 전망

올해만 145% ↑… 트럼프 효과 특독  
SEC, 암호화폐 시장 규제 완화 예상  
연준 “비트코인, 달러 아닌 금 경쟁자”  
번스타인 “10년간 금 대체할 수 있어”

지난달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후 한 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역시 비트코인을 ‘금’ 경쟁자라고 언급한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20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8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5일 장중 10만3900달러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 시세가 역대 1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2009년 이후 15년 만, 2017년 11월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이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일 4만2000달러로 시작했고, 미국 당국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힘입어 7만3800달러까지 급등했다.

이후 차익매물 실현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5만4000달러까지 하락했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10만달러 돌파라는 새 역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올해만 145% 상승했고, 미국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53% 급등하면서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돌파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소셜에 “비트코이너(비트코인 소유자) 축하한다”라며 “\$100,000!!!”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다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자축했다.

이처럼 10만달러 돌파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면서 투자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앳킨스 전 위원은 은행, 암호화폐 업계, 금융 거래 회사 등을 고객으로 둔 컨설턴트 회사 패토맥 글로벌파트너스를 이끌었다.

차기 SEC 위원장은 3조 달러(약 4240조2000억원) 규모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연준의 의장까지도 비트코인을 금에 비견하면서 화폐의 가치를 인정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딜북 서밋’ 행사 대담에서 “비트코인은 가상이고 디지털이지만, 금과 같다”며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고 금의 경쟁자다”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과거에도 비트코인이 자산 군으로서 ‘유지력’을 지녔다고 평가한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시총)이 7번째로 높은 자산에 등극했다.

현재 비트코인 시총은 2조달러(약 2848조원)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2조 1430억달러) 바로 뒤에 이름을 올렸다. 비트코인 시총은 1위 금(17조9330억달러)의 10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0만달러 돌파 시 단숨에 시총 2위를 기록하게 된다.

실제 시장에서는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20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이 향후 10년간 금을 대체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 2025년 말 2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더 이상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는 “비트코인 가격 랠리는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말 12만5000달러까지 치솟고, 2025년 말에는 2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정치불안 장기화… 금감원, 업권별 현장소통 강화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 예정  
유동성·환율 등 주요 위험요인 점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융 업권별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오는 9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와 10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와 10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령 이후 커진 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하는 확대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



해졌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7일 국민의힘 불참으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며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각 업권에 유동성·환율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시장 급변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증권사 CEO 간담회와 보험사 최고리스크담당자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다.

특히 비상계엄령 해제 직후인 지난 5일에는 36개 증권사 CEO들과 긴급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판단과 달리 탄핵 정국 장기화 조짐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강한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4일부터 최근거래일인 6일까지 외국인투자자는 코스피시장에서만 1조원85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조유의 사태 속에서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증시안정펀드(10조원)와 채권시장 안정펀드(40조원) 사용 준비를 마쳤지만, 투입 시기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사진)도 지난 6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탄핵, 권력 교체, 정치적 불안정 여부와 관계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금리·수수료 산정기준 개편 등 공정금융 성과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성과 공유

금융감독원의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추진위)가 1년간 총 21개의 과제를 발굴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힘쓴 성과를 공유했다. 추진위는 내년에도 소비자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추진위가 수행한 1년간의 활동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8일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됐다. 금감원은 추진위 설치배경에 대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술적인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올해 ▲금리·수수료 부담

의 실적 완화 ▲금융거래 시 불이익 소지 재고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등의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추진위는 우선 소비자의 금리·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편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부과 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정기적금과 관련해 월 납입금을 늦게 입금하여 만기 약정이자에서 일정금액(지연이자)을 차감할 경우 지연이자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했다.

추진위는 향후 외부전문가의 참여 확대하고 소비자의견수렴 채널 다양화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 1 QR코드를 찍어 접속
- 2 10개의 숨은 그림 찾기
- 3 경품 응모하기

### 한정판 에너지 굿즈 3종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 \*위 상품 중 1종 선택순 발송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카드 News

## 우리카드 독거노인 100가구에 김치 1톤

우리카드가 취약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우리카드는 종로구 창신2동 독거노인 100가구에 김치 1톤(t)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이기수 우리카드 경영기획본부장, 남성현 창신2동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우리카드는 창신2동과 지난 2018년 11월에 1사1동 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민족대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아 각각 음식료품 100박스를 기부했다.

##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 ‘선데이 팝업’

현대카드는 쿠킹 라이브러리에서 선데이 팝업(Sunday Pop-up)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팝업에는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김태성 셰프와 이하성 셰프가 다이닝을 선보인다. 예약은 현대카드 다이브 앱에서 가능하다.

오는 28일 아트 라이브러리에는 ‘무빙 이미지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큐멘터리 ‘낸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희시대’를 상영한다. 제7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셀 위 덴스’ 전시를 선보인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순간을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 KB국민카드 헤리티지 클래식 카드 2종 선보

KB국민카드가 프리미엄 카드인 ‘헤리티지’ 라인업을 강화한다.

KB국민카드는 8일 ‘헤리티지 클래식’ 카드 2종을 새롭게 공개했다.

‘헤리티지 클래식’은 실속 있는 프리미엄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을 겨냥해 출시했다. 국내외 전 가맹점과 생활 밀착영역 추가 할인과 적립을 제공한다. 취향에 따라 할인형과 스카이패스형으로 발급할 수 있다.

할인형은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1% 청구할인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한다. ▲쇼핑 ▲생활 ▲교육 ▲건강의 생활 밀착 4개 영역에서는 이용금액의 0.2%를 추가 할인한다.

스카이패스형은 국내외 가맹점 결제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이어 ▲쇼핑 ▲생활 ▲교육 ▲건강 등 생활 밀착 4개 영역과 ▲항공 ▲호텔 ▲골프 등 ‘플렉스’ 영역에서 추가 1마일리지를 적립한다.

## KB국민카드 차기 수장에 김재관 내정

# ‘1등 카드사’ 특명... 재무건전성 확보 과제

이달 중 최종 심사 통해 확정 경영관리 역량·실행력 뛰어나 연체율 관리·체질개선 급선무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내정자

차기 KB국민카드 대표에 김재관 KB금융지주 재무담당(CFO) 부사장이 낙점됐다. ‘1등 카드사’를 향한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과제는 디지털전환(DT)과 재무건전성 확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지난 6일 KB국민카드를 이끌 차기 수장으로 김재관 KB금융지주 CFO(부사장)를 내정했다. 김 부사장은 이달 중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 심사와 추천을 통해 2년간의 임기가 확정된다. KB금융지주는 김 부사장 선임 배경으로 경영관리 역량과 실행력 등을 꼽았다.

김 부사장은 1968년생이다. 이 대표보다 세 살 젊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KB국민은행 양주테크노지점장과 기업상품부장을 거쳤다. 이후 ▲중소기업과객부장 ▲SME 기획부장 ▲기업금

융술루션본부장 ▲경영기획그룹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표와는 경영기획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경영기획을 제외하면 두 인물은 상반된 행보를 보인다. 이창권 사장은 KB금융지주에서 신사업부장과 전략기획상무, 전략총괄(CSO) 부사장 등을 수행했다. 조직 내에서는 전략에 잔뼈가 굵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임기를 시작한 이 사장은 디지털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KB페이’에 남다른 공을 들였다.

반면 차기 수장으로 내정된 김 부사장은 그룹에서 재무를 총괄한 ‘재무통’이다. 재무건전성 확대에 고삐를 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무건전성 개선은 카드업계의 공통 과제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장기적인 흐름에서 업황이 나빠지는 가운데 선제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김재관 차기 사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연체율 해소가 숙제다. 지난 9월말 기준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29%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던 지난 3월(1.31)과 비교하면 0.02%포인트(p) 낮아졌다. 그렇지만 지난해 동기(1.22%)와 비교하면 0.07%p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말(1.03%) 대비 0.19%p 상승했다.

KB금융지주는 차기 사장 내정에 대해 “기민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통해 ‘1등 카드사’로의 도약을 끌어 낼 수 있는 경영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권 사장이 3년간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합격점’을 받은 만큼 김재관 차기 사장의 어깨가 무겁다. 이 사장은 지난 2022년 임기를 시작해 총 3년간 KB국민카드의 대표직을 수행했다. 새로운 신용카드

라인업인 ‘위시(WE:SH)’를 공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위시카드는 출시 2년여만에 발급 100만장을 돌파했다. ▲마이(My) 위시카드 ▲아워(Our) 위시카드 ▲위시 올(All)카드 등을 연달아 공개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핀셋마케팅’을 통해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쿠팡와우카드 또한 이 사장의 팔목할 성과다. 출시 1년 만에 발급 100만장을 돌파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KB국민카드의 신규 회원수는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중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쿠팡와우카드가 실적 견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어떤 인사든 전임자와 비교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표의 전임자의 사업과 본인만의 신사업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성과도 거둬야 하는 만큼 초기 성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강남 전통부촌에 역세권, 저렴한 분양가... 흥행 예고

### 부동산 현장 르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 하이엔드 브랜드로 미래가치 ↑ 59·84㎡ 등 실속형 설계 주목 계약금·대출제한, 자금계획 필수



‘아크로 리츠카운티’ 모형도(왼쪽)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신축공사 현장. /안상미 기자

올해 마지막 ‘로또청약’으로 꼽히는 서울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지난 6일 견본주택을 열었다. 지하철 방배역까지 걸어서 6~7분 안팎이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 명문 학군,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대거 쏠렸던 곳이다.

견본주택은 사전방문예약제로 운영하면서 크게 붐비지 않고 관람객들이 여유있게 돌아볼 수 있었다. 하루 400명씩 사흘간 1200명만 가능하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상 27층, 8개 동으로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방배동 일대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를 비롯해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현재 총 12개 구역의 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1만2000여 가구가 넘는 신축타운이 된다.

일반 분양 물량은 140가구로 많지 않다. ▲44㎡ 20가구 ▲59㎡ 73가구 ▲75㎡ A 16가구 ▲75㎡ B 17

가구 ▲84㎡ D 1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경쟁률의 문제일 뿐 청약 흥행은 이미 예고됐다. 입지가 워낙 좋은 데다 규제 지역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400m 거리인 역세권이고, 1km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이 위치해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까지 생활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견본주택에는 일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59㎡와 84㎡ 타입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유닛이 마련됐다. 특히 59㎡의 경우 4베이 판상형 구조며, 침실 3, 욕실 2에 드레스룸과 주방공간까지 공간 활용도가 높았다.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와 스쿠린 골프 등 운동 시설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 등도 계획되어 있다. 다만 스카이라운지는 공공개방시설로 외부인에게도 개방된다.

규제 지역인 만큼 좋은 입지도 분양가는 낮게 결정됐다.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44㎡ 14억 370만원 ▲59㎡ 16억 7630만원 ▲75㎡ 20억 6600만원 ▲84㎡ 21억 7120만원 ▲144㎡ 38억 4170만원 등이다.

인근에 신축으로는 2021년 입주한 ‘방배그랑자이’의 전용 84㎡가 올해 10월 29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모두 30억원 이상이며, 최고 호가는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최소 8억원 안팎의 시세차

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강남권의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방배동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로 공급되는 만큼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금 계획은 꼼꼼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 당첨과 함께 내야 하는 계약금이 20%로 84㎡가 4억원이 넘으며, 규제지역이라 중도금 대출이 50%까지만 가능해 나머지는 자납해야 한다. 재당첨제한 10년에 전매제한 3년이 걸려있다.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공사입찰공고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비고
갈현동새마을금고 본점리모델링 대수선공사	0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64 2공사내용: 57개층 대수선공사 및 EV 설치공사	공사 도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일반 경쟁입찰

구분	공고일	입찰참가접수 마감일	입찰
일자	2024년 12월 09일	2024년 12월 13일 12:00	2024년 12월 26일 10:00
장소	신문	본점 1층	본점 2층 이사장실

\* 모든 서류 접수는 우편접수 불가(따감 일시 준수)

3. 입찰참가자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주된 영업소가(본사)가 서울, 경기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새마을금고 복지회에 등록된 업체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새마을금고 점포 대수선 공사를 1건이상 준공한 업체  
라. 입찰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 부여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사신청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새마을금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입찰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 영업자연락처 ☎ 02-358-0511, 박숙자 전무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12월 09일

갈현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인생략)



# 中 중심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재편 韓 각형 등 차세대 제품 개발 주력

포트폴리오 다변화 통해 시장 대응  
**LG엔솔** '3대 폼팩터' 전략 확립  
**삼성SDI** 현대차, GM 등 협력 강화  
**SK온** 각형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

올해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에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점유율은 하락했으며 중국 업체들의 강세가 지속됐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8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은 686.7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5.0% 성장했다. 같은 기간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도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중국 업체들에 밀려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20.2%에 머물렀다. LG에너지솔루션은 6.4% 증가한 81.2GWh로 3위(점유율

11.8%)를 유지했고 SK온은 9.5% 증가한 31.1GWh를 기록해 5위(점유율 4.5%)에 올랐다. 7위(점유율 3.8%) 삼성SDI는 2.3% 증가한 26.2GWh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국 CATL은 28.3% 성장한 252.8GWh를 기록하며 1위(점유율 36.8%)를 유지했고 BYD(비야디)는 31.3% 성장한 115.3GWh로 2위(점유율 16.8%)에 올랐다.

중국 업체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배터리 시장의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내수 시장뿐 아니라 신흥국까지 진출해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지난 11월 21일 미국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시장 내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터리 3사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전략을 모색해 시장에서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역량을 확대해 캐즘 이후의 시장 변화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폼팩터(형태) 중 하나인 각형 배터리 공급 및 개발에 일

제히 나서 고객의 요구에 발맞춘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각형 배터리는 CATL이 주력으로 공급하는 제품이다. 세계 시장 수요가 늘면서 국내 배터리사들도 포트폴리오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자동차 제조 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뛰어들었다.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업계 유일한 '3대 폼팩터' 전략 체계를 갖추게 됐다.

삼성SDI는 현대자동차그룹과 GM 등에 공급을 확정 짓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GM과는 미국 내 2027년 양산을 목표로 35억달러를 투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SK온 또한 각형 배터리 설비 투자에 착수했다. SK온은 서산 2공장에 각형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하고 장비 입찰을 진행했다. 국내 복수 장비사와 일부 중국 장비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디자인 공개

좌석 활용 가능한 센터콘솔 적용

국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시장의 독보적 강자 '팰리세이드'가 한층 웅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특히 9인승 모델을 추가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운행이 가능해져 기아 카니발과 경쟁도 예상된다.

현대차는 7일 프리미엄 플래그십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이하 신형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2018년 11월 첫 출시 이후 6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로, 팰리세이드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견고하고 고급스러워진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신형 팰리세이드의 전면부는 수직적인 DRL과 라디에이터 그릴이 독보적인 캐릭터와 결합해 압도적인 첫인상을 갖춰내고, 미래적이면서도 강렬한 느낌의 센터 포지셔닝 램프는 높은 후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위)외장(아래)실내.

드와 균형을 이루며 마치 웅장한 조형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신형 팰리세이드에는 현대차 최초로 1열 가운데 좌석으로 활용이 가능한 센터콘솔이 적용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양성운 기자

# "특가 항공권으로 겨울여행 떠나세요"

## LCC업계, 할인·팝업 등 혜택 강화

겨울시즌 앞두고 여행객 확보 나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겨울시즌을 앞두고 실적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연말 증가하는 여행 수요를 겨냥해 앞다퉀 특가 항공권과 신규 노선, 현지 업체와 손잡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12월의 딜라이트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딜라이트 팝업 스토어는 매월 특정 노선을 대상으로 운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월간 프로모션이다. 이달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컨셉으로 38개의 국제선 노선에 최대 10% 할인을 제공한다.

에어서울은 현지 숙박, 관광업체와 손잡고 겨울 성수기 시즌을 맞은 제주 여행을 고민하는 여행객을 위한 '제주에서의 이야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우선 '해비치호텔&리조트제주' 투숙 시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아트스커스는 정가 대비 55% 할인된 1만원에, 제주시티투어버스는 33% 할인된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35개 노선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시작가는 20만원대로 책정했다. 일본, 동남아, 중화권 노선에서도 최대 15%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1월 인천~홍콩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태국 방콕 노선도 주 5회에서 주 7회로 확대 운영한다.

이스타항공은 인천~도쿠시마노선 단독 취항을 기념해 초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공항이용세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 4만9900원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수소분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충청남도 김태홍 지사(앞줄 여섯번째), 전략기획실장 김동욱 부사장(앞줄 일곱번째),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영석 부사장(앞줄 아홉번째) 등 주요 관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 충청남도 수소분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 현대차, 충청남도 수소교통 운영 돕는다

수소버스 전환 등 친환경 정책 동참  
정비 서비스 거점 6개소 구축 계획

현대자동차가 수소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의 수소 전환에 맞춰 에너지 사업자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2033년까지 수소분야에 5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울산에 '수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포한데 이어 충청남도의 수소 생태계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8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태홍 충청남도지사, 정영석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김동욱 전략기획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수소분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30년까지 도내 경유버스 1200대를 수소버스로 대체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소교통 전환을 추진 중인 충청남도의 친환경 정책에 현대차가 동참하며 성사됐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일렉시티,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충청남도에 보급하고 충청남도는 이를 시내외버스, 통근버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 도심형 수소전기버스인 '일렉시티수소전기버스'는 교통 지체 구간 등 전기 소모율이 높은 노선 운행에 적합하다는 것이 현대차측의 설명이다. 1회 충전으로 최대 635km 주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충청권에 수소 상용차 정

비 서비스 거점 6개소를 구축하는 등 충청남도의 원활한 수소교통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에 울산시와도 손잡고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에 나서며 울산을 수소 친화적 도시로 만든다고 발표한다. 양측은 수소 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공급,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울산시의 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전해 등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수소 공급, 유통 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수소 트랙터, 수소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 차종 다변화와 보급 확대 등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의 사업 추진에 대해 협력한다.

/양성운 기자 ysw@

## SK온, 세계 최고수준 품질경영 역량 입증

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  
65개국 74개 기구 공인성 보장

SK온이 최고 수준의 품질경영 역량을 재차 입증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 교정 및 측정 역량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온 성과다.

SK온은 자사 품질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교정 역량이 보다 강화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서 인정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SK온은 4년 전 최초 인정 획득 이후 금번 실시된 첫 갱신 심사에서 우수 품질 검증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에 SK온이 인정받은 국제공인교정기관은 측정 장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따라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정 제도를 확립해 제품, 서비스 등의 안전과 품질을 평가하는 시험·검사·교정기관들을 공인하고 있다.

이번 인정 획득에 따라 SK온은 총·방전기, 온도 및 습도 측정기와 같은 자사 배터리 셀 품질 평가 장비들이 전압, 전류, 온도, 습도 등 4대 항목에 대해 정확한 측정 값을 갖는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차현정 기자

# 오픈AI, 챗GPT Pro로 수익화 속도 AI 적자해소 위해 고급 멤버십 출시

AI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월 200달러로 프리미엄 AI 제공  
영리화 전환, 재정 지속 가능성 모색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선보이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오픈AI가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오픈AI가 자사 생성형 AI 챗GPT에 기존 가격 대비 10배 비싼 챗GPT Pro 옵션을 선보였다. 지난 9월 공개한 새로운 LLM 'o1' 정식 버전 서비스도 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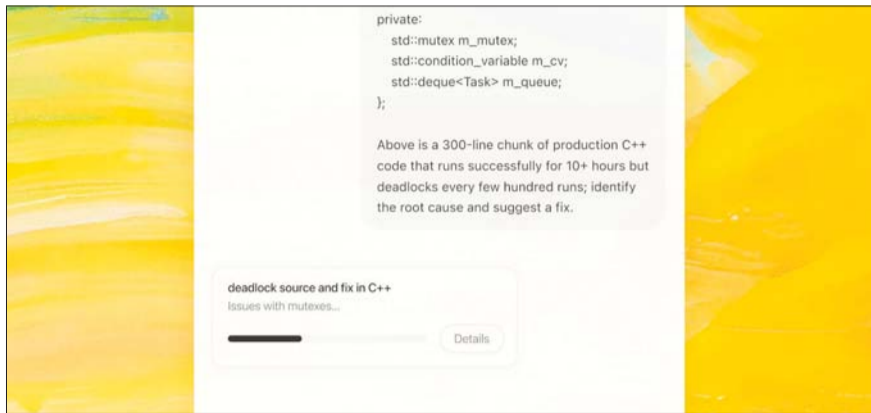
새롭게 선보인 멤버십은 월 200달러(약 28만5000원)로, 추론모델인 챗GPT-4o의 확장버전인 o1 pro 옵션 및 기존 모든 모델 접근 옵션을 제공한다. 지난 9월 Pro o1 미리보기 모델을 선보인 당시 오픈AI는 해당 버전이 수학 및 코딩 문제에 대해 더욱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오픈AI는 "미국 주요 기관의 의학 연구자 10명에게 챗GPT Pro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Pro 보조금을 타 지역과 연구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Pro는 추후 새로운 기능을 계속 추가할 것이며 더욱 많은 컴퓨팅 작업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이날 프리뷰 모델로 제공해온 o1 또한 정식으로 출시하고 챗GPT 플러스와 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식 모델은 이미지 업로드를 통한 분석과 설명 기능이 있으며 브리뷰 모델 대비 주요 환각현상 등이 3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가의 멤버십 출시를 두고 업계에서는 오픈AI의 수익화 작업이 닻을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픈AI의 수익화와 관련된 움직임은 지난해 샘 알트먼 CEO 축출 사건 이전부터 있었다. 11월 일리아 수츠케버 전 오픈AI 수석과학자가 주도한 샘



챗GPT o1 Pro 모드는 기존 4o 모델 대비 답변 생성을 위한 시간이 더 걸리지만 추론 등을 통한 답변을 생성하는 만큼 정확도가 높다. 이미지는 챗GPT o1 Pro 모드에서 코딩 관련 질문을 했을 때, 프로 모드는 답변 생성 시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률을 표시하는 모습. /오픈AI

알트먼 축출 당시 두 사람 간 오픈AI 수익화 작업에 대한 이견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수츠케버 수석과학자는 당초 오픈AI가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한 만큼 계속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존속하며 AI로 인한 위험성에 관한 연구에 더 큰 자금을 배당하기를 요구했다. 알트먼 CEO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은 물론 수익화에 더욱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 5일만에 알트먼 CEO가 복귀하고 수츠케버 수석과학자가 오픈AI를 떠나며 오픈AI는 수익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오픈AI는 멤버십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지난달 영리법인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선언했다.

샘 알트먼 오픈AI 대표는 "우리는 비영리재단으로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보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상태"라며 "영리기업으로의 전환은 자금 조달을 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픈AI의 적자 규모는 알려진 바는 없으나 천문학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IT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10월 현재(Pro 멤버십이 없을 때) 오픈AI의 적자는 2029년까지 계속 될 전망으로 2029년에는 누

적 적자가 1000억 달러(135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더라도 매출과 동시에 비용 폭이 커지기 때문에 적자 폭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올해 오픈AI의 예상 적자는 50억 달러(7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적자에는 현 AI기술이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는 점이 1차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온라인 검색 한번에 평균 0.3Wh(와트시) 전력이 사용되는데 반해 챗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은 검색당 10배 수준인 2.9Wh가 필요하다. 이는 AI 개발·학습과 IDC의 냉각을 위한 추가 전력 소모 등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 단순히 질문만으로 소모하는 전력을 계산한 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오픈AI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예상한 것 보다 막대한 수준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AI 개발 및 학습을 위한 개발 비용에 더해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추정하는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 수익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LGU+, 금오공대에 오픈랜 상용망 구축

‘플러그페스트’서 성과 공개

LG유플러스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캠퍼스에 오픈랜 상용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오픈랜 기술실증 행사인 ‘플러그페스트 2024’에서 성과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오픈랜은 이동통신기지국장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해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기술을 말한다.

이번에 구축된 오픈랜 상용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LG유플러스가 삼지전자·노키아와 장비를 구축하고, 이노와이어리스의 측정 솔루션을 통해 검증해 금오공과대학교 구미캠퍼스에 조성한 무선접속망을 LG유플러스 상용 코어망에 연결해 상용 오픈랜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오픈랜 상용망 구축을 통해 캠퍼스 내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기존 5G 네트워크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구축 성과를



금오공대 학생이 오픈랜 상용망을 통해 5G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 /KT

글로벌 O-RAN 플러그페스트에서 공개했다. 이번 플러그페스트에서 LG유플러스는 장비 제조사인 삼지전자, 쉘리드, CS, 노키아, 델과 대학 및 연구기관인 금오공대, 경희대, ETRI, TTA, ONF와 계측기 업체인 이노와이어리스,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VIAVI와 협력했다.

이상현 LG유플러스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이번 금오공대 오픈랜 상용망 구축은 도전과 혁신의 결과물이다"라며 "앞으로도 오픈랜 기술을 통해 국내 네트워크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태계와 협력하며 고객들에게 더 나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 엔비디아, AWS에 NIM 서비스 제공 확대

NIM 통해 AI 확장성·경제성 혁신

엔비디아가 아마존 웹 서비스(AWS) AI 서비스 전반에 NIM 마이크로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생성형 AI 모델의 효율적 확장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한 고성능 추론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WS는 6일(현지시간) 리인벤트 콘퍼런스에서 주요 AWS AI 서비스에 NIM 마이크로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추론 속도가 빨라지고 지연 시간이 줄어든다.

NIM 마이크로서비스는 AWS 마켓플레이스, 아마존 베드록,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에서 제공된다. 개발자들은 이를 통해 엔비디아 최적화 추론

모델을 쉽게 배포할 수 있다. NIM은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에 포함되며, 트리톤 추론 서버, 텐서RT, 파이토치 등을 기반으로 한다. 오픈소스 모델과 엔비디아 파운데이션 모델, 맞춤형 모델을 지원한다.

NIM은 EC2, EKS,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배포할 수 있으며, AWS의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 인스턴스에 최적화됐다. AWS에서 사용 가능한 NIM 모델은 ▲네모트론-4 ▲라마 3.1 8B/70B ▲믹스탈 8x7B 등이다.

소프트서브는 AWS에서 NIM 기반 AI 솔루션 6종을 개발해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 중이며, 이를 통해 AI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 속도가 개선되고 비용이 절감된다. /김서현 기자 seoh@

## SKT, 오픈랜으로 AI·가상화 혁신 주도

글로벌 제조사 협업 성과 발표  
오픈랜 표준화·효율화 선도

SK텔레콤은 오픈랜 실증 관련 글로벌 행사인 'O-RAN 글로벌 플러그페스트 2024'에서 브로드컴, 에릭슨 등 글로벌 오픈랜 제조사 10개사와의 연구협업 성과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오픈랜은 이동통신기지국장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해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기술을 말한다.

O-RAN 글로벌 플러그페스트 2024는 O-RAN 얼라이언스 규격 기반의 기지국 장치 및 솔루션의 개방성과 상호운용성, 기능성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참여 회사들은 온라인상에서 각자의 성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행사 주관사로 참여, 글로벌



SK텔레콤 연구원들이 플러그페스트에 오픈랜 기술을 출품하기 위해 시험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무대에 오픈랜 기술력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제조사들과 협력해 고도화하고 있는 오픈랜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오픈랜 기술은 가상화 기지국'과 '인공지능(AI) 기반 무선망 최적화 기술' 등으로, 회사의 차세대 인프라 구조 진화 비전인 '텔코 에지 AI (Telco Edge AI)'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회사는 에릭슨, 노키아 등과 함께 다양한 구조의 가상화 기지국을 개발하고, 이들의 성능과 용량, 소모전력 등을 집중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오픈랜 기지국의 소모전력을 최적화한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무선망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서 SK텔레콤은 브로드컴, HCL테크, 비아비 솔루션 등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솔루션을 개방형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기반으로 연동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에치에프알(HFR),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개방형 프론트홀 기반 무선신호처리부(RU) 전력 절감 기술을 개발 및 검증, 가상화·지능화·개방형 프론트홀 등 오픈랜 3대 핵심 기술 영역 전반에 걸친 앞선 기술력을 과시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KT, '으랏차차 패키지'로 매장 지원 강화

7개 매장 선정해 광고 제작·송출

KT는 '으랏차차 패키지'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고 지니 TV 방송 광고를 통해 인근 지역에 송출하는 매장 홍보 지원 활동 '으랏차차 매장 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7개 매장을 선정했다. 대구 제주공인칼국수 서부정류장점을 비롯해 김포 이루다제면소 김포직영점, 청주 신양자강, 춘천 토담숯불닭갈비, 광주 민속촌 효천점, 창녕 우포한우프라자, 화성 봉담재 등이다. 각 매장의 광고는 지난 달 18일부터 지니 TV를 통해 송출되기 시작했다.

KT 으랏차차 패키지는 통신 서비스



으랏차차 매장 홍보 프로젝트 광고 스틸샷.

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상무)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매장 홍보를 지원하고, 매출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 경기 둔화·정치리스크 ‘겹악재’… 코스피, 박스권 지속될 듯

지난주 코스피, 전주비 27.75포인트 ↓ 투자자예탁금, 신용공여잔고도 줄어 外人, 계엄사태 이후 1.3조 순매도 美 소비자물가 지표 변수 가능성



코스피가 전 거래일(2441.85)보다 13.69포인트(0.56%) 하락한 2428.16에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70.94)보다 9.61포인트(1.43%) 내린 661.33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 둔화 조짐에다가 계엄 파동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대내외 악재로 내년 초까지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27.75포인트(1.13%) 하락한 2428.16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661.33으로 16.86포인트(2.49%) 떨어졌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순매수를 이어가던 개인은 지난 6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 7500억원 이상 매도했다.

국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감소세다. 투자자 예탁금은 3일 기준 49조8987억원으로 8월 이후 10조원 넘게 줄었다. 빚투(빚내서 투자)의 지표가 되는 신용공여잔고는 같은 기간 16조5658억원으로 연중 최고 수준이었던

20조2477억원(6월24일)에 비하면 18% 가량 감소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하반기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17조원을 팔아치웠다. 특히 계엄사태 당일인 지난 4일부터 3거래일 동안에는 1조335억원을 순매도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 리스크가 해소돼야 수급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년 국회 탄핵 의결부터 현재 결정까지 3개월간의 경험치에 미루어 볼 때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일제히 하락하

는 트리플 약세 등은 크지 않지만 반도체 등 펀더멘탈(기초체력) 우려, 트럼프 발 불확실성, 탄핵 등으로 인해 정치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약세장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CPI) 지표가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11일 예정된 CPI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며, 단기적 증시 반등의 재료가 될 수 있어서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보다 금리 부담 완화에 반응할 수 있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대응할 수 있으나 연속성 있는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기는 어려운 만큼 방어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계엄 여파에 동력 잃은 ‘밸류업’… 금융·증권株, 外人 이탈 심화

KRX 은행·증권, 각 8.31%·6.00% ↓ 간만에 유입된 外人, 계엄에 재이탈 정책지원 등 감안하면 과도 하락 평가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계엄령 선포 사태로 인해 동력을 잃고 있다.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기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기대감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증권주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KRX 은행’ 지수와 ‘KRX 증권’ 지수는 각각 8.31%, 6.00%씩 하락했

다. 개별 종목별로는 KB금융은 15.71%, 신한지주는 9.04%, 하나금융지주는 7.8% 씩 떨어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4일 간만에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이탈하며 코스피는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밸류 다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들은 최근 14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만 약 19조원을 팔아치웠다. 계엄령 사태로 어지러웠던 4일부터 6일까지는 코스피에서만 약 1조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지난 4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금융주였다. 외국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삼성전자(748억원)를 제외하고는 신한지주(653억원), 하나금융지주(479억원), KB금융(471억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떠난 것으로 보여진다. 4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6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국내 증시 투자 매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은행주는 밸류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은행의 적극적 주주환원

제고 실천에 기인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시장 평균 수익률 상회) 중이었다”며 “다만 최근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주로 인식되며 상승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적 지원, 2025년 이후 총주주환원 강화 등을 감안하면 최근 은행주 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은행주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연초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밸류업 정책은 국내 증시 상승을 위한 중요한 방향으로 꼽히기도 했다. 상반기에는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하반기에

와서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사실상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기준 코스피는 연초보다 8.93% 떨어졌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밸류업의 정책 추진 동력이 돼야 할 법안 개정 필요 안건들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현 정부의 리더십과 정권 유지 여부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밸류업 정책 추진 주체이지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오랜 과제로 삼아왔기에 정책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 꾸준한 이익 창출에 정치 테마주 등극까지… 시장 이목 ‘집중’

## metro 관심종목 카카오페이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 전망 尹 정부와 마찰… 탄핵정국에 오름세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본업인 결제·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꾸준한 이익 개선 기대와 해외주식 거래대금 확대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회복에 힘입어,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 중심적으로 영업이익 회복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며 카카오페이 관련주 전반의 주가 상승 및 변동성 확대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빠르면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을 맞이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결제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부문이 견조한 이익 창출을 지속하는 가

운데, 증권 사업 부문에서는 해외주식 거래 확대와 부동산 PF 신규 딜 증가, 비용 통제를 통한 적자 축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가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6736억원, 영업이익 576억원을 올릴 것”이며 “카카오페이증권의 적자폭도 200억원가량 줄어든 83억원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카카오페이 계열사 주가가 윤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 탄핵사태 등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킴즈, 카카오펙 등 주요 계열사 주가가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며, 탄핵정국에 따른 테마주 성격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이 과거 카카오텍시 시장 지배력을 두고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

성을 언급하며 카카오페이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는 점에서, 정권 불안정성이 카카오페이 관련주에 반사적 기대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면 주가 단기 변동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 6일, 코스피지수가 증가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0.56%(13.69p) 내리는 와중에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6.12%(1750원) 상승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의 본업은 꾸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 카카오페이의 적정 순자산가치(NAV)는 약 4조5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엔 카카오페이의 실적 개선이 뚜렷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3만1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결제·금융서비스 강화에 따른 이익 창출력 제고, 증권 부문 부진 완화, 그리고 정치적 이슈에 따른 변동성까지 삼각요인이 맞물리며 카카오페이는 당분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교보증권 신년맞이 3종 이벤트

교보증권은 신년맞이 해외주식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 3종을 오는 2월 말까지 진행한다

고8일 밝혔다. 우선 ‘수수료 이벤트’는 해외주식을 최초로 거래하거나 6개월 이상 휴면고객 대상으로 미국주식 온라인 수수료 0.017%를 적용한다.

‘담보대출 이벤트’는 최근 3개월간 담보대출이 없는 고객에게 180일 동안 연 3.9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선물 이벤트’는 해외주식 매매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금융투자상품권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의 현금 리워드를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미국주식을 1억 원 이상 거래한 신규 및 휴면고객 전원에게 금융투자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며 기존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치킨 쿠폰을 증정한다.

/신하은 기자

# “AI시대, MSP·친환경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확장 가속화”

##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 권인택 오픈놀 대표

커리어·채용서 교육·투자 등 확장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 지속 제공 인도·美·우즈벡 해외진출 기대감 AI 채용 혁신 서비스 ‘미니인턴’ 일경험 있는 실무인재 채용 최적

커리어·채용 전문기업이자 코스타다 상장사인 오픈놀은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자(MSP),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신사업 확장에 주가로 나선다.

권인택 오픈놀 대표는 8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다보니 사람, 교육, 공간, 투자 등으로 사업 분야가 넓어졌다”면서 “최근엔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자’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AI)시대에 기업들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MSP란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부터 이전, 운영관리, 보안 등의 서



권인택 오픈놀 대표.

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관련 업계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오픈놀은 해외시장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권 대표는 “해외사업은 시니어, AI 등 기존 사업 영역에 비해 성장률이 더

다. 하지만 기대가 매우 크다. 인도, 미국, 우즈베키스탄이 현재 타깃 1순위 국가”라고 덧붙였다.

현재 오픈놀의 사업 영역은 청소년, 청년, 시니어 중장년, 해외 등 사실상 유아·소년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애주기를 커버하고 있다.

서비스 영역도 디지털 교과서, 기업 가정신 교육, 대학생·유학생 대상 취업 교육 및 일자리 매칭, AI 일자리 매칭, 대기업 은퇴자 ERP 서비스, 외국인 채용 디지털 사이니지 확대 등을 넘나들고 있다.

간판 서비스인 미니인턴 외에도 온라인 이력관리 서비스 ‘오픈리오’, 오픈놀의 모든 교육 콘텐츠를 모아놓은 ‘M클래스’, 개인별 이력서를 분석해 맞춤형 취업스케줄을 알려주는 ‘오픈레너’(예정) 등도 차례로 선보이고 있다.

또 서울목동에 있는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 구로에 있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등 현재 17곳의 ‘공유 공간’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유치에 목마른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를 설립, 현재 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84년생인 권 대표는 2012년에 오픈

놀을 창업했다. 첫 해 매출은 300만원이었다.

“청소년 시절부터 과정 중심의 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창업 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 교육을 무료로 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수고비로 300만원을 줬다. 그것이 창업 후 처음 들어온 돈이었다. 첫 매출인 셈이다. 당시 회사 직원은 10명이었다. (웃음)”

오픈놀 대표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서비스는 ‘미니인턴’이다.

권 대표는 “AI 기술 등을 접목한 미니인턴은 구직자를 스펙이 아닌 기업이 제시한 실무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으로 평가해 채용하는 인재 매칭 솔루션”이라며 “기업이 온라인으로 문제(프로젝트)를 내면 취준생이 2주간 이를 푸는 방식으로 사실상 미니 인턴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실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니인턴은 타사의 ▲지인 추천 ▲직무경력 및 이력 ▲관계형 인재 매칭 등과도 차별화된다는 게 권 대표의 설명이다.

권 대표는 “대기업은 신입을 뽑아서

한해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연수를 시킨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실무형 인재를 뽑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니인턴은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또 실무에 최적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직무경험을 증명하는 직무역량 평가 방식이 미니인턴의 특징이다. 연차가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을 중심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발전 가능성을 검증한다.

미니인턴에서 기업이 내는 프로젝트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5단계 정도가 쌓였다.

권 대표는 “참여 취준생이나 인재를 찾으려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미니인턴을 통한 채용률은 평균 17% 정도 나온다. 어떤 시기엔 20%를 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창업 첫 해(2012년) 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오픈놀은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2019년 33억원, 2020년 71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163억원, 2023년 25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에는 37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글로벌혁신특구 후보에 대구 등 3곳 선정

### AI로봇·바이오제조·우주항공 신기술 실증 통해 경쟁력 강화

대구(AI로봇), 경남(우주항공), 대전(합성생물학)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공모 선정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역특구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

한 대의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4개 지역을 처음 선정했으며, 올해는 7개 시·도가 공모에 참여했다.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3곳을 내년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대구 is 완성도 높은 제품화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첨단제조 존과 AI 기술을 접목한 제품고도화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I 혁신 존을 조성·연계한다. AI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인간 생활지원 로봇 및 고난이도 비정형 제조작업 로봇의 실증을 추진한다.

대전은 합성생물학 산업 육성 및 생

태계 확산을 통해 첨단 바이오제조 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바이오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규제 특례를 받아 바이오 소재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경남은 지역의 우주산업 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첨단 위성 개발 전주기 관리 표준절차 및 체계를 마련하고 위성 관계 인프라를 구축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첨단 신기술은 규제장벽에 부딪히거나 안전 기준 등 제도가 미비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AI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제조 분야 신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 행사에서 세라젼 이경수 대표(가운데)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라젼

## 세라젼 ‘무역의 날’ 산자부 장관상 등 2관왕

김봉환 제조운영실장 장관 표창 이인수 서비스본부장 무협회장 표창

세라젼이 ‘제61회 무역의 날’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포함해 2개의 표창을 수상했다.

8일 세라젼에 따르면 올해 김봉환 제조운영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이인수 서비스본부장이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품질·서비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승호 기자

세라젼은 창립 1년 후인 1999년에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 승인과 함께 첫 해외 수출에 성공한 이후 중국, 인도, 유럽 등에 진출하며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키워왔다. 현재 70여개국에 2500여개의 글로벌 체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안정적으로 해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 전략을 유지하는 등 제조·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마스터 V9 등 세라젼 척추의료기기는 국내를 비롯한 70여개국에 유통되는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한다. /김승호 기자

## 청호나이스 3000만불 수출의 탑

청호나이스가 ‘3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8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엔 ‘3000만불 수출의 탑’을 받아 연간 매출액 50% 이상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1993년 설립한 청호나이스는 기술력 기반의 회사로 2003년 얼음정수기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업계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중소기업계, 소외계층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10~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판매

중소기업계가 바자회를 통해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는 지난 11월에 연 ‘2024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의 연장 행사로 중소기업계의 후원물품을 지역주

민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할 예정으로 판매 수익금은 연말연시 지역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쓰인다.

사랑나눔 바자회는 중기중앙회 1층 로비 및 후문에서 진행하며 주방용품, 완구·문구, 화장품, 생활용품 등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제품들로 라인업을 구성해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하고, 판매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용품 지원, 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지원, 군경부대 위문품 전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롯데백화점 광복 직영점’ 오픈

코웨이가 부산시 중구 롯데백화점 광복점 9층에 브랜드 체험과 판매 매장 ‘광복 직영점’을 열었다.

8일 코웨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복 직영점은 해운대점에 이은 부산 지역 두 번째 직영 매장이다.

코웨이 직영 매장 중 롯데백화점에 최초 입점했다.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과 마산점에 이은 세 번째 백화점 입

점 매장이다.

이번 광복 직영점 오픈으로 코웨이는 전국 18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부산 광복 직영점은 신제품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S8+’를 비롯해 아이온 얼음정수기, 비렉스 페블케어 등 베스트셀러를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호주서 550억대 스마트팜 수주 성사 혁신밸리 모델로 글로벌 진출 박차

농식품부,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 한국형 혁신밸리 조성 MOU 체결 시범 온실 준공·협력 기반 강화 바이어 간담회·판촉행사 등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주 호주에서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 워크'를 개최해, 스마트팜 구축 협력 업무협약(MOU) 및 수주 계약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행사는 5~6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에서 열렸다.

양측은 총 3건의 MOU를 맺었다. 현지에 한국형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MOU 2건과 민간기업 간 2ha 규모의 스마트팜을 구축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 1건이다. 행사에서는 또 3900만 달러(10ha)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 계약이 성사됐다.

협력워크 행사 첫날에는 올해 9월 준공된 한국 시범 온실에서 호주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 등을 초청해 K-스마트팜의 기술력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이어 3번째로 준공된 호주 시범 온실은 오세아니아 권역의 우리 스마트팜 기업들의 진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시범 온실 조성에 참여한 이수화학은 시범 온실 준공 경험과 협력워크를 기반으로, 2ha 부지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추가로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다. 조만간 후속 수주 성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 날에는 퀸즐랜드에서 양국



지난 6일 호주 퀸즐랜드에서 열린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 포럼'의 모습. /농식품부

간 스마트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퀸즐랜드대 관계자 등은 올해 3월 방한해 농식품부와 면담 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 도입과 관련해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협력 포럼에는 드보라 테리 퀸즐랜드대 총장이 직접 참석했다. 퀸즐랜드대는 한국 농업기술진흥원과 호주 내 한국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그린플러스와도 혁신밸리 조성 협력·딸기 스마트팜 구축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개정 체결했다. 지난 9월 호주 시장에서 1900만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던 그린플러스는 이번 협력 워크를 통해 푸어그린팜과 추가로 3900만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었다.

농식품부는 호주시장 내 K-푸드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수입을 독려하기

위해 현지 바이어 간담회 및 판촉행사도 진행했다. 호주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 새로운 맛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 K-푸드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이후 호주를 오세아니아 진출의 교두보로 보고, 바이어 발굴 및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바이어 소감도 소개했다. 이 바이어는 "현지에서 김치·라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향후 대형 유통매장 진출을 통해 호주의 K-푸드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직접 호주에 와서 보니 전통적으로 노지 농업을 해오던 호주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신규 수요와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 2개사 선정

해수부, 2027년까지 3000억 규모 조성

해양수산부가 올해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에 누리종합개발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한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운영해 왔다. 올해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지난 5월, 9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로 8개 연안해운선사(연안화물선 7척, 연안여객선 1척)를 선정한다.

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은 지난 10월28일~11월16일 현대화 펀드 제3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했고, 연안해운선사 2곳이 지원했다.

이후 지난 3일 현대화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한 결과, 누리종합개발, 대방해운산업개발 등 2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30~60%의 건조비를 지원받게 된다. 선



세종 해수부 청사. /메트로

사는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게 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가 위축된 연안선사가 신조선을 건조하는데, 현대화 펀드 지원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연안 교통 혁신대책을 통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2027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6척의 대형 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선박이 현대화돼 연안선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50년 경험, AI로 그리는 기후 대응"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역사서 발간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홍수통제소 50주년을 기념해 홍수를 포함한 물관리의 역사를 담은 '한국의 홍수통제 50년사' 역사서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역사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홍수통제소가 추진한 주요 성과와 변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홍수통제 50년 ▲분야별 변천사 ▲물재해 현황 및 홍수통제소의 대응 ▲물관리 미래 비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1974년에 개소해 전국의 홍수 및 갈수 예보, 수문 조사와 관측, 국가 수자원 관리와 재해 예방 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와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홍수관리의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번 역사서를 통해 홍수통제소의 사명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민과 물관리 정책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에게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동근 한강홍수통제소장은 "홍수통제소의 50년 역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역사"라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가상모형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 송미령 장관 "농업행정 공백 최소화 폭설피해 적극 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정 비상상황 속에 농업행정 관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경기 이전 소재의 한 축산농가를 찾아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대설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어려운 국정상황이지만, 농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각지에 쏟아진 눈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2015헥타르(ha)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1676ha(시설하우스 937ha, 인삼시설 521ha 등)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송 장관은 경기도와 이천시 관계자 등을 만나 신속한 복구, 축사시설 개축 시 인허가 간소화 및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전국 41개센터, 청년 맞춤형 취업 연결

고용부, '2025 취업드림 콘서트' 개최 AI 면접부터 현직자 멘토링 등 제공 70회 채용행사로 청년 취업 활로 모색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집중 취업·채용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집중 취업·채용지원 기간 동안 주요 민간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 잡코리아와 협력해 서울, 부산, 대전 등 6개 권역에서 '2025 취업드림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취업 전략 특강, 직무 토크쇼, 일자리 수요데이 채용행사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 전략 특강에서는 수시·경력직 채용 증가, 데이터 기반 채용, 인공지능(AI) 면접 등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에 맞춰 구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방법과 면접 전략 등을 다룬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채용 환경 속에서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직무 토크쇼에는 CJ제일제당, LG유플러스, 삼성전자, HD현대로보틱스, 크래프트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우

수기업의 현직자가 멘토로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멘토들은 각 기업의 입사 공략법, 조직 문화, 직무 경험 등을 생생하게 전하며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참가자들은 취업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만의 입사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 취업·채용지원 기간 동안 전국 41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수요데이를 확대 운영하며,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약 70회의 일자리 수요데이 채용행사가 진행되며, 일자리 으뜸기업과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면접 기회뿐만 아니라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등 구직자의 취업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기업 채용 전형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AI) 모의면접과 역량검사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위험성평가 사례로 본 중대재해 예방 방안

고용부, 두 번째 사고백서 발간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현장에서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발간했다. 발간 당시 산업현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이 두 번째 발간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안전보

가'와 관련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위험요인을 알면서도 적시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점을 고려해, 법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이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했는지를 생생하게 담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인터파크 평점 9.4!  
현실 캐릭터들의 집합소 '올웨이즈 편의점'으로 오세요!

뮤직 드라마

#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MERRY  
SALE



인터파크 티켓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시어터**

원작 김호연 소설 <불편한 편의점>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김재경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김소영 | 분장디자인 임영희

주최·제작 극단 지우 | 기획 제이엘컴퍼니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interpark | 문의 02-332-4902

# 부산시, 통합 LCC 본사 유치 추진... 시민단체 '반발'

(저비용항공사)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총괄 TF 에어부산 독립법인 유치 등도 요구 시민단체 “에어부산, 부산이 키워 LCC 본사 들어와도 ‘껍데기’일 것”

부산시가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방법으로 기존 에어부산 분리매각 대신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부산 본사 유치를 추진하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한항공에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혹은 에어부산 독립법인을 대한항공과 산업은행 측에 부산에 두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통합 LCC 본사 유치를 통해 남부권 거점 항공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발표 할 당시 통합 LCC 본사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세컨더리 허브(Secondary HUB)’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에어부산 본사 사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지난 2022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 LCC는 진어 브랜드로 운영하며, 허브는 인천국제공항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는 플랜B로 에어부산을 진어와 동등한 자회사로 두는 ‘독립법인’ 형태를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에 사회공헌 차원의 지역 살리기 명분도 만들어주고, 현재 에어부산 체제와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운동을 주도했던 이 이후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는 부산시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이 상임대표는 “에어부산은 지난 2007년 부산시와 부산상공계가 손잡고 만들고 부산시민들이 키운 부산회사”라면서 “통합 LCC 본사가 부산에 온다고 한들, 지금과 같이 에어부산처럼 부산을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에서의 고용창출도 미비한 ‘껍데기 본사’가 부산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에어부산 독립법인 형태도 그냥 단순히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나 부산상공계 지분을 높여 실질적인 지역 지배력을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대한항공이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에 반드시 에어부산이 분리매각을 해 완전한 지역의 거점항공사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어부산은 지난 2007년에 설립됐으며, 부산시와 부산상공계를 중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참여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계는 에어부산 지분 약 16%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은 41%다.

에어부산은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이 매출액 7578억원, 영업이익 1265억원, 당기순이익 60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연말까지 매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어부산 임직원의 70%가 부산, 울산, 경남 출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전체 일본인 관광객의 약 47%,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약 35%, 전체 대만인 관광객의 약 36%가 에어부산을 이용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고성군

#### 삼봉리에 해삼 종자 24만미 방류

경남 고성군은 어업인 소득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삼봉어촌계와 공동으로 해삼씨뿌림 사업을 추진해 삼산면 삼봉리 해역에 해삼 종자 24만미를 방류했다.

해삼은 바위틈이나 바닥에 서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 특히 암반과 해조류가 많은 삼산면 삼봉리 해역이 정착생활을 하는 해양생물의 적지다.

방류된 종자의 크기는 1.0~7.0g이며 질병 검사 및 친모 유전자 검사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이후 2~3년이면 상품화가 가능해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 영광군

####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전남 영광군이 자원재활용 촉진과 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해 17년 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한다.

영광군은 그간 물가 상승을 이유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해 왔으나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로 불가피하게 내년 1월1일 자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는 ‘5l(리터) 80원→100원’, ‘10리터 160원→200원’, ‘20리터 300원→400원’, ‘50리터 750원→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10리터 100원→200원’, ‘20리터 200원→400원’, ‘30리터 300원→600원’으로 각각 가격이 오른다.

/영광(전남)=양수영 기자

## 안동시, 제3회 추경안 1조7980억 편성

제2회 대비 350억 늘어난 규모 일반회계 1.6조, 특별회계 1719억 지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포함

경북 안동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 7980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는 제2회 추경 대비 350억원(1.9%) 늘어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341억원 증가한 1조 6261억원, 특별회계는 9억원 늘어난 1719억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56억원을 비롯해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50억원, 경북애(愛)마루 올케어 센터 조성 43억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27억원, K-U시티 프로젝트 16억원이 포함됐다.

지난 10월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도 반영했다.

자체사업은 낙동공원조성 토지매입 27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5억원 등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일반회계 기준 최종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966억원(24.4%)으로 가장 크다.

이어 농림해양수산 2328억원(14.3%), 국토 및 지역개발 2267억원(13.9%), 문화 및 관광분야 1700억원(10.5%) 순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3회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29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 가을 바람을 쐬고 있다. /뉴스

## 광주·전남, 올해 가을 역대 가장 더웠다

평균기온 18.9도... 평년비 2.9도 ↑

광주·전남의 올해 가을은 역대 ‘가장 더운 가을’로 기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가을철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가을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은 18.9도로 평년

(16도)보다 2.9도 높았다. 이는 기상 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이다.

9월 폭염일수는 8.9일(평년 0.2일), 열대야일수는 8.7일(평년 0.3일)로 평년을 훌쩍 뛰어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경북교육청, 학교 공기청정기 1등급 외면

‘1등급 제품 우선구매 규정’ 위반

경북교육청이 교실의 공기청정기 임대 계약과 관련해 1등급 제품 우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2025년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유지 관리 용역 사전 안내’에 따르면 이번 입찰 대상은 도내 1427개 초·중·고에 3만2169대의 교실 공기청정기다.

이를 위한 예산은 122억여원이며 학교들은 내년 3월부터 3년간(30개월) 임대를 하게 된다. 월 임대료 기준 단가는 3년 전의 5만원에서 이번에는 3만8000원으로 낮아졌다.

지역교육청들은 이 달부터 내년 2

월까지 임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제품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기준을 ‘2등급 이상’으로 정했다. 충남교육청이 1등급으로 제한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24년 7월 1일)을 위반한 것이다.

이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올해도 지역 교육청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북 지역 학교들은 충남에 비해 더 많은 전기료를 내야 한다.

/경북=김상복 기자

## 신안군, 고령자 위해 마을 안길 정비

6년간 183억 투입해 150개 마을 정비

전남 신안군은 고령자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위한 마을 안길 정비를 추진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39%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군은 2018년부터 노후되고 파손된 마을안길 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수요 조사를 거쳐 290개 마을, 250km 구간을 2019년부터 착수해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콘크리트로 형성돼 파손된 부위에 걸려 넘어지거나 보행보조차의 이동이 어려운 안길을 아스콘으로 덧

씌워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6년 동안 총 18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150개 마을, 약 162km를 정비했다.

신안군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단순도로 정비를 떠나 넘어져 골절되면 쉽게 치료되지 않는 고령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잦은 요철로 인한 이동불편과 소음 등에 의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자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사업은 고령의 주민들이 빈번히 이동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전남도

#### 겨울 테마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전남도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가 전남의 겨울을 즐길 다양한 테마상품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쉽고 편하게 도내 다양한 관광지를 즐기도록 광주 유스퀘어, KTX 광주송정역과 연계해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별 테마상품과 전남·광주 공동상품, 축제 등 남도의 문화와 자연, 미식을 맛볼 다양한 코스를 9900원부터 시작하는 착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 부산시

#### 사하구서 ‘겨울 희망의 빛거리’

부산 사하구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곳곳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는다.

사하구는 9일부터 구내 12곳에 ‘2024년 겨울 희망의 빛거리’를 선보인다.

점등식은 9일 대대포 동측해안에서 열리며, 이날을 시작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다대포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역 지역에서 빛장식 물들이 거리를 환하게 밝힌다.

아울러 하리단길에 조성된 빛거리는 내년 3월31일까지 운영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 “더 빠르고, 더 신선하게”... 대형마트까지 ‘직송’ 경쟁 가세

### 배송 다각화로 진화하는 유통 배민, 대형마트와 비식품 직송 강화 쿠팡, 산지 직송 신선식품 시장 공략 롯데쇼핑, AI 활용 배송 과정 자동화

e커머스 플랫폼이 유통업계와 협력해 ‘직접 배송(직송)’ 경쟁을 본격화하고, 배달 상품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협력해 예약형 ‘마트 직송’ 서비스를 강화하며 식품뿐만 아니라 비식품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배달 식품의 신선도를 높이는 ‘산지 직송’ 방식을 내세우고, 기존 공산품 중심에서 신선 식품으로 배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민족의 ‘장보기 쇼핑’ 서비스에 이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입점했다.

기존에는 이마트24, CU,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지난달 이마트에 이어 이달 2일 홈플러스가 합류하면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대형마트 상품도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직접 배송 준비하고 있는 물류 센터 가상 이미지.

배송이 가능해졌다.

배달의민족이 이번 대형마트와의 협력을 통해 내세운 것은 ‘마트 직송’ 서비스다. 마트 직송 서비스는 대형마트 매장의 상품을 고객이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집까지 배송하는 맞춤형 예약배송이 특징이다.

마트 직송 서비스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배달 상품의 다각화다. 기존 대형마트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품 위주의 상품을 배송했지만, 이번 배달의민족 플랫폼에 입점하면서 리빙, 스포츠용품, 가전 등 비식품 위주로 배달 상품 품목을 확대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배달의민족 입점을 통해 대형마트에서 구매 가능한 식품뿐 아니라 리빙, 스포츠용품, 가전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의민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마트 직송으로 배송되는 상품은 사륜차를 이용해 배송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전제품 등 부피가 큰 상품도 문제없이 배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도 빠르게 직접 배송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자제품, 가전 등 공산품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근 ‘산지 직송’을 통해 신선식품과 농수산물 배송까지 사업을 다각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산지 직송 서비스는 대한민국 최남단 진도와 완도, 서해 및 동해안 등 전국 산지에서 잡은 수산물을 주문 일 기준, 다음 날 아침까지 고객 집 앞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신선도를 유지하고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쿠팡은 산지 직송 규모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000톤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전라도 해남, 부산, 마산, 충청남도 태안 등 전국 각지에서 식품 공급 판로를 확보하고 북·오징어·새우 등 기존 3~4가지 어종에서 꽃게·고등어·갈치·주꾸미 등 30여 가지로 산지에서 직송 가능한 식품목을 확대했다.

여기에 롯데쇼핑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내세우며 온라인 식품류 배송 시장에 뛰어든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온라인 식료품 배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와 계약을 맺고 총 6개의 자동화 물류센터 구축을 오는 2030년까지 완공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의 자동화 물류센터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해 주문에서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로 이뤄진다는 게 특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빠르고 신선하게 상품을 전달하려는 e커머스 중심의 직송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배송 대상 상품이 다각화되는 것 역시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한우부터 와인까지... 내년 설 선물 미리 준비하세요”

### 홈플러스, 선물세트 사전예약 시작 10만원대 이상 고가상품 27% 확대

홈플러스가 이달 1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5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사전예약으로 제공되는 이번 설 선물세트는 실속형부터 고급형 상품까지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됐다. 특히 한우와 주류 선물세트 품목을 강화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가성비 좋은 2만~6만원대 중·저가 선물세트 상품 수를 전년 대비 약 10% 확대했으며, 중·고가인 6만~9만원대도 24%, 10만원대 이상 상품도



홈플러스 2025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앞두고 브랜드 모델들이 관련 상품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홈플러스

약 27% 늘렸다. 대표적으로 정육 선물 세트는 한우부터 수입육, 양념육까지 다양한 구성과 가격대로 마련했다. ‘농

협안심한우 1등급 갈비 냉장 세트’와 ‘농협안심한우 정육갈비 혼합세트’ 등이 준비됐다. 또 등심, 안심, 채끝 등으

로 구성된 최상위 등급 한우 ‘농협안심 한우 저탄소 1++No.9등급 프리미엄 세트’도 30% 할인한 가격대로 선보인다.

과일 선물세트의 경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유명산지 과일 등 고품질 선물세트 상품을 확대했다. 특히 ‘GAP 사과 세트’와 ‘GAP 배 세트’와 더불어 유명 산지 선물 세트인 ‘진장 사과·안성 배 세트’, ‘산지기획 사과·배 혼합세트’가 마련됐다.

주류 상품 구성도 강화했다. 와인의 경우 ‘1865 프렐루전’, ‘앙드레 끌루에 상파뉴 실버 브뤼+브뤼 그랑 리저브’ 상품이 준비됐다. 이 외에도 ‘문배술명작’, ‘와일드터키 8년’ 등의 주류 상품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GS리테일-안테나 컬래버 간편식 선보여 규현 떡볶이 ‘조떡규떡’ 출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안테나’와 손잡고 차별화 협업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8일 밝혔다.

GS25는 ‘안테나’ 소속 아티스트의 두터운 국내의 팬덤을 신규 고객으로 전이시키고 ‘안테나’는 GS25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통해 팬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목적 등이 이번 협업 추진의 주요 배경이 됐다. 양사는 첫 협업 활동으로 안테나 소속 가수 규현과 공동 개발한 간편식 ‘조떡규떡 계란떡볶이’, ‘조떡규떡 라볶이’ 2종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쓱닷컴 비즈 전문관, 연말 프로모션 시작 신세계百貨, ‘헬로 뉴 산타’ 연말 캠페인

SSG닷컴이 올 한 해 ‘비즈 전문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인기 상품을 공개하고, 송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비즈 전문관’은 기업 고객을 위한 전문 쇼핑몰로, 기업 전용 위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SSG닷컴 공식 웹 사이트 내 마련됐다.

SSG닷컴에 따르면 올 한 해 쓱닷컴 비즈전문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커피믹스다. 초콜릿, 과자, 쿠키 등 열량이 높고 커피에 곁들이기 좋은 탕비실 간식용 가공식품도 인기 순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과일, 한우 세트는 물론 스낵, 참치 세트까지 거대처선

물용 기획 상품도 매출 상위권에 포함됐다.

일상용품 중에서 물티슈, A4 용지, 스테이플러 칩 등 일회 사무용품 판매량이 높은 매출 순위를 보였다는 게 SSG닷컴 측 설명이다.

SSG닷컴은 오는 15일까지 비즈 전문관 송년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먼저 첫 구매 혹은 최근 3개월 이내 구매내역이 없는 사업자 회원에 대상으로 7만원 이상 구매 시 1만5000원을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주문 금액대에 따라 최대 10% 할인되는 6종 할인 쿠폰팩도 지급한다. /안재선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연말 캠페인 ‘헬로 뉴 산타’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여자 아이돌 카리나를 중심으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캠페인 제작에는 아이돌 카리나와 함께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참여했다. ‘돌고래 유괴단’은 광고,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룹이다.

앞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신세계백화점 공식 사회관계 서비스망(SNS) 계정에는 산타의 포토



‘헬로 뉴 산타’ 캠페인 관련 포스터. /신세계백화점

부스 체험기, 지하철 탑승기 등 산타 이야기를 담은 게시물이 게재됐다. 지난 1일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산타를 대신해 선물 배달에 나선 카리나의 콘텐츠를 공개했다. /안재선 기자

### 풀무원-전북도 ‘김 육상양식 심포지엄’

풀무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주 소재 라한호텔에서 김 육상양식 기술의 지속 가능성과 기술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중·일 김 양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김 육상양식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후 변화와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과 탄소 저감 연구 분야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김 육상양식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공주대학교와 풀무원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중·일 전문가들은 6일에 진행된 김 육상양식 견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신원선 기자

# “내게 딱 맞는 컬러는?”…뷰티업계, AI로 맞춤형 화장품 확대

아모레퍼시픽 ‘센슈얼 립 커스텀 매치’ 헤라 립 제품, 142개 색상 등 조합 최대 2000여개 제품 실시간 제조

코스맥스, ‘아트랩’ 지분 100% 인수 피부고민 따른 유효성분 처방 극대화 최소 주문 수량 1개 시대 도약 방침



헤라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아모레성수 매장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며 브랜드 대표 제품 ‘센슈얼 립’을 총 2000여 종으로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

뷰티 업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브랜드 헤라에서 맞춤형 화장품 제품군을 파운데이션 제품에서 립 제품으로 확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아모레성수 매장에서 ‘센슈얼 립 커스텀 매치’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센슈얼 립 커스텀 매치’는 입술 메이크업 서비스다. 헤라 대표 입술용 제품인 ‘센슈얼 립’을 고객 개인의 피부 톤과 취향에 적합하게 제조해 준다. 전

문 조제 관리사가 현장에서 벨벳, 글로스, 플러핑 등 3가지 제형을 비롯해 142개 색상과 5가지 향을 다양하게 조합해 최대 2000여 개의 립 제품을 실시간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특히 립 제품 색소를 정밀하게 배합하고 관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피부 색채 연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했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또 아모레퍼시픽은 카이스트 특허 기술이 탑재된 프로그램으로 피부 색상, 명도, 채도 등을 분석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서 지난 2023년에는 헤라 ‘실키 스테이 커스텀 매치’를 공개한 바 있다. ‘실키 스테이 커스텀 매치’는 아모레퍼시픽의 고도화된 피부 측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자의 피부에 최적화된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서비스다.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은 피부 결과 모공을 관리해 주는 메이크업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총 125개 색상을 구현해 세분화된 소비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

은 해당 서비스 도입 1년 만에 아무레성수 매장에서만 4000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대표 뷰티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도 뷰티 인공지능 분야 강자 자리를 노린다.

코스맥스는 지난 11월 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아트랩’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코스맥스는 지난 2020년 아트랩에 5억원을 처음 투자했고, 이후 아트랩과 협업해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쓰리오우’도 개발했다.

코스맥스는 쓰리오우를 통해 피부 고민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필요한 유효성분 처방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코스맥스는 생산 측면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제작을 고도화해 ‘최소 주문 수량 1개’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코스맥스는 사내 인공지능(AI) 혁신 조직도 신설했다. 인공지능 혁신 조직은 아트랩 창업자인 엄태웅 대표가 담당하게 됐다. 인공지능에 로

봇 기술까지 더해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완성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코스맥스 측의 설명이다.

코스맥스에 따르면 엄태웅 대표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박사과정을 거친 AI 및 로봇공학 전문가다.

아울러 코스맥스가 이미 지난 2021년 개설한 코스맥스 AI 연구소는 기초 화장품 사용감 측정 기술, 색조 화장품 스마트 조색 시스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한 뷰티 업계 관계자는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큰 화두가 됐고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화장품 산업에서는 소비자 유행의 흐름도 중요하다”며 “하나의 특정 유행을 따르기보다 개인화된 취향,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한 요즘 MZ세대 성향, 구체화된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소비 생활 등으로 인해 맞춤형 화장품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바닥 청소, ‘클린마루 3종’으로 한 번에”

LG생활건강 ‘홈스타’ 신제품 3종 목적 따라 습식, 건식 상태로 활용 물 세척 대비 세정력 1.7배 탁월



홈스타 ‘클린마루 3종’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청소 전문 브랜드 홈스타에서 뽀송한 마룻바닥클리너, 촉촉한 이지클린 스프레이미플데, 도톰한 3겹 바닥청소패드 등 ‘클린마루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 3종은 단 한 번, 단 한 장으로 집안 바닥 청소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룻바닥클리너 용액을 스프레이미플데에 담고 바닥청소패드를 밀대 끝에 부착한 다음, 일반 밀대처럼 바닥을 쓱쓱 밀면서 청소하면 된다.

마룻바닥클리너를 뿌려서 바닥청소 패드를 ‘습식’ 상태로 만들면 머리카락, 먼지, 찌든 때가 잘 달라붙고, ‘건식’ 상태로 사용하면 쏠은 물이나 음료수 등이

그대로 흡수된다. 원하는 대로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어 정전기 청소포와 물 걸레 청소포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마룻바닥클리너’는 물 세척 대비 세정력이 1.7배에 달한다. 또 먼지를 모으면서, 찌든 때를 제거하고, 광택 세정까지 하는 3중 효과를 갖춘 특수 성분을 포함한다. 빠른 건조 기술까지 적용돼 바닥에 물 자국이 남지 않는 마무리가 가능하다.

‘스프레이미플데’는 클리너를 120도 각도로 폭넓게 분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고, 클립형으로 설계돼 청소하는 내내 청소포를 고정해 준다.

3겹 원단으로 된 양면 ‘바닥청소패드’의 두께는 자사 기존 습식 청소포에 비해 5배에 달한다. 이 패드 한 장으로 약 39평을 청소해도 해지 않는 등 내구성이 강화됐다.

LG생활건강의 홈스타 ‘클린마루 3종’은 각종 온라인몰과 백화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지난 5일 ‘베베콕X동국제약 제품 공동 개발 협약식’에서 베베콕의 장동석 전략기획실장(왼쪽부터), 노경아 대표, 동국제약의 송준호 대표, 염선호 전무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제약

# 동국제약-베베콕, 영유아 카테고리 확장

영유아 건식·스킨케어 제품 개발

을 영유아 분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동국제약은 지난 5일 영유아식품 전문 기업 베베콕과 ‘영유아 건강기능식품 및 스킨케어 카테고리 확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장기 유아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과 스킨케어 제품군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개발한 제품은 향후 양사의 공동 브랜드로 상용화하기로 했다.

특히 동국제약은 건강기능식품 사업

동국제약은 앞서 지난 2023년부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마이핏’,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 이너뷰티 ‘마시는 센시안’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강화했다.

한편, 베베콕은 국내 대표 영유아식품 전문기업으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와 영양과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유식부터 유아식, 간식, 고른 영양을 갖춘 건강기능식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청하 기자

# CJ온스타일, 리빙상품 O2O 서비스로 선포

(온·오프라인 연계)

오는 15일까지 ‘리빙ON페어’ 진행



제공해 고관여 카테고리인 리빙 상품 쇼핑의 만족감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번 ‘리빙ON페어’는 지난 10월 진행된 CJ온스타일의 대표 리빙 행사 ‘홈리빙페어’에서 큰 사랑을 받은 브랜드와 떠오르고 있는 트렌디한 리빙 상품을 엄선해 선보인다. 문제(토탈 수면 전문 브랜드), 까사미아(리빙&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레이디가구(국민 영

유아 침대), 핏처(모션 데스크), 방연당(핸드메이드 수납함), 아티잔(하이엔드 싱크볼) 등 다채로운 홈스타일링 상품을 직접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전시관은 ‘우리는 집에서 자란다’라는 테마로 거실, 침실, 주방 등 실제 집 구조로 전시관이 꾸려져 단순 관람이 아닌 집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구형태 및 고객의 생활양식과 필요에 따라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시된 상품들은 QR코드를 통해 CJ온스타일 앱을 통해 올해 마지막 최대 혜택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전시관을 활용해 실시간 인테리어 컨설팅을 진행하는 모바일 라이브커머스도 진행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W컨셉, 애플리케이션 UI·UX 전면개편

(사용자 환경·사용자 경험)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 확대

케이션 개편으로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홈 화면에서는 브랜드와 상품, 기획전 등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고객 취향에 맞는 브랜드와 상품의 자동 추천 기능을 강화했다.

패션 플랫폼 W컨셉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환경(UI)·사용자 경험(UX)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사용자 환경은 화면의 배치, 버튼, 메뉴, 아이콘 등 사용자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조작하는 모든 시각적·물리적 요소를,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겪는 모든 과정에서의 편리함, 만족도, 효율성 등 전반적인 느낌과 경험을 포괄한다.

W컨셉에 따르면 가장 먼저 애플리

고객 라이프스타일 맞춤 AI 추천으로 쇼핑 편의성과 실제 구매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W컨셉 측의 설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짧은 콘텐츠(숏폼)도 선보인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CJ온스타일이 연말연시를 맞아 엄선한 리빙 상품을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통해 선보인다.

CJ온스타일은 이달 15일까지 O2O 리빙 큐레이션관 ‘리빙ON페어’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CJ온스타일 모바일 앱에서 리빙 기획전이 열리며, 입체적인 고객 경험 제고를 위해 12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홈데이블 데코페어’에서 오프라인 전시관을 동시 운영할 계획이다.

보는 즐거움, 체험의 즐거움을 함께



#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샤넬 이벤트



**\*현장방문 참여 가능**

- 이벤트 기간 2024. 11. 14. ~ 12. 31. (1.5개월)
- 당첨자 발표 2025. 1. 3.(금) 17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응모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샤넬이벤트 참여
- \* 이벤트 참여는 나무가든 현장에서만 가능

- 경품
  - 1등 샤넬핸드백 (1명) 1800만원 상당
  - 2등 샤넬향수 (15명)
  - 3등 나무가든 5만원 식사할인권 (30명)
  - 4등 나무가든 3만원 식사할인권 (50명)
  - 5등 나무가든 생맥주 2잔 (200명)

- 기타
  - 식사할인권은 고기손님에 한해 적용 (식사손님 불가)
  - 생맥주는 식사손님/고기손님 모두 사용 가능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기간 : 2025. 2. 28까지
  - 생맥주 1인 2잔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은 테이블당 1회에 한함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중복사용 가능

- 문의 02-785-8883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 한강 “소설 속 가장 깊은 접은 사랑을 향하고 있어”

##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

“소설을 쓸 때 절실한 질문에 빠져 삶과 맞바뀌고 좋다고 여기는 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54)이 소설을 쓸 때 좋은 점은 삶과 맞바뀌고 될 만큼 절실한 질문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설가 한강은 7일(현지 시각)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 “장편소설을 쓰는 일에는 특별한 매혹이 있다. 완성까지 길게는 7년까지 걸리는 소설은 내 개인적 삶의 상당한 기간들과 맞바꿈 된다”며 “그렇게 맞바뀌고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 속으로 들어가 머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장편소설을 쓸 때마다 질문들을 견디며 그 안에 산다.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면서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변형된 나는 그 상태에서 다시 출발한다. 다음의 질문들이 사슬 또는 도미노처럼 포개지고 이어지며 새



한강 작가가 7일(현지 시각)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스시

소설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강은 ‘채식주의자’를 썼을 때는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더 이상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골몰했다.

‘바람이 분다, 가리’를 집필할 때에는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삶과 세계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

떻게 나아갈 것인가. 마침내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는가. 생명으로 진실을 증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를 물었다고 했다.

‘희랍어 시간’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이 덧없고 폭력적인 세계 가운데서 인간의 가장 연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우리는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어 ‘소년이 온다’ 집필 작업을 하던 시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진을 보며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선한, 혹은 악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양립할 수 없는 질문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회상했다.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2021년 가을까지 질문들의 국면은 계속해서 변하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두 질문 사이의 긴장과 내적 투쟁이 글 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그러나, 최근 2~3년 전부터 그 생각을 의심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첫 소설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접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는 고백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현대면세점, 고용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현대면세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현대면세점은 ▲타임 리워즈 제도(유급 반차차 사용권)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육아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사내 복리후생 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정민 현대면세점 경영지원본부장(오른쪽)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다. /현대면세점



## 유한양행, 북한 출생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유한양행은 지난 6일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 유한재단이 ‘2024년도 북한 출생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유한재단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추천 선발된 100명의 대학생들에게 각 1년치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유한양행



## 동아쏘시오홀딩스, ‘우수 자원봉사자 기업’ 표창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5일 서울시 동대문구로부터 ‘우수 자원봉사자 기업 부문’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나무심기 등 녹색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오무한 윤리경영실장(오른쪽)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 제주항공, CCM 서비스 ‘소비자 대상’ 수상

제주항공은 6일 한국소비자학회 주관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 17회 소비자 대상’에서 ‘CCM 서비스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김경원 제주항공 커머셜전략실장(가운데)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



## 경동나비엔,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경동나비엔이 보일러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박성근 경영관리총괄임원(오른쪽)이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과 선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 지엠한마음재단, 전국 곳곳에 김장김치 나눔

헥터 비자레알 이사장 등 참여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기를”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이하 한마음재단)는 7일 GM 협신회와 함께 한국GM 부평 본사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총 200박스의 김치를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 사회 복지 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겸 한마음재단 이사장과 토미 호세아 GM 해외사업부문 구매부문 부사장, 방선일 한국GM 구매부문 부사장을 비롯해 GM 협신회 문승 회장이 참석했다.

헥터 비자레알 사장은 “김장김치 나눔은 GM이 협력사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겨울을 지원하기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는 7일 GM 협신회와 함께 한국GM 부평 본사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헥터 비자레알(오른쪽부터) 한국GM 사장 겸 한마음재단 이사장, GM 협신회 문승 회장, 토미 호세아 GM 해외사업부문 구매부문 부사장, 방선일 한국GM 구매부문 부사장이 김치를 담고 있다.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동절기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라며 “GM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장김치 행사를 위해 GM 협신회에서 2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 큰 따뜻함과 건강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양성운 기자 ysw@

# 승실대 이윤재 신임총장 선임

학교법인 승실대학교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경제학과 이윤재 교수(사진)를 제16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신임총장은 오는 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4년이다. 1956년생인 이윤재 신임총장은 승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노년 일리노이대학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거쳤다. 1991년부터 승실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고,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을 역임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신용보증기금 사외이사, 중소기업연구원 이사, 재단법인 중소기업인 희망재단 이사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현진 기자



# 경희사이버대, 해외 기증 도서관 후속지원 나서

경희희망클럽, 덕틀라 초교 방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경희희망클럽이 지난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 인근 덕틀라 초등학교를 방문해 2018년에 건립·기증한 도서관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후속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경희희망클럽은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윤병국·임근욱 교수와 학생들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로, 캄보디아 덕틀라 초등학교와 15년 이상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며 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희희망클럽이 지난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 인근 덕틀라 초등학교를 방문해 2018년에 건립·기증한 도서관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후속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경희사이버대

인해 중단됐던 현지 방문을 재개하며 도서관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추가 후원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윤병국, 임근욱 교수는 “이 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향

한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는 경희학원의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

## 부음

▲정추희(전 부산일보 상무)씨 별세, 옥명자씨 남편상, 정윤주·정재익(SK하이닉스 부장)씨 부친상, 장혜경씨 시부상, 윤후의(전 전남 무안경찰서장)씨 장인상 = 8일 오전 5시55분,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51-610-9677

▲김용태씨 별세, 장해자씨 남편상, 김대욱(키움증권 S&T부문 상무)·김현마·김경미·김기미(늘결에 구강내과 치과원장)씨 부친상 = 7일,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53-258-444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언어를 배우다. 시대와 통하다.

• 영도학부

• KIO학부

• 연세학부

• 한겨레학부

• 스페인어학부

•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 경영학부

•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 다문화·심리상담학부

• K뷰티학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5-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1차 2024. 12. 1(일)~2025. 1. 16(목) 2차 2025. 2. 3(월)~2025. 2. 17(월)



문의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 외국어 특화 교육에 AI 콘텐츠 더해... 새로운 교육모델 개척

## 2025 사이버대 가이드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온라인상에 집약해 2004년 개교한 이래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최첨단 온라인 교육 환경, 학생 중심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로 자리매김했다. 내적 혁신을 거듭하며 가파르게 성장해 온 사이버한국외대는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아 제2교사인 CUFS20을 준공해 대학의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 콘텐츠에 활용하고 교육과정에도 반영했다.

#### ◆일반대학원 신규 설치 교육부 인가

사이버한국외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학부 입학정원 150명 증원을 승인받았다. 올해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AI& English학과와 글로벌한국어학과 두 개 전공의 일반대학원 신



사이버한국외대 전경.

### 학부 150명 증원... 대학원 신설도 6개 외국어학부, 실무 전문가 육성 사이버대 최초 'AI&English' 개설 빠른 습득 가능한 소단위 전공제도

구 설치 인가를 받아 사실상 석사과정 입학정원 역시 120명이 증원됐다. 이는 사이버한국외대의 우수한 교육콘텐츠와 탁월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검증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언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지역학을 아우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6개의 외국어학부와 ▲경영 ▲지방행정·의회 ▲산업안전·주택관리 ▲다문화·심리상담 ▲K뷰티 등 실무 전문가 육성에 특화된 사회과학·실용 5개 학부의 도합 11개 학부, 19개의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외국어+문화'의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 ▲'언어+실용학문'의 융

복합 교육과정 ▲'실용교육+유망 자격증' 취득과정이라는 사이버한국외대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사이버한국외대는 2024학년도 2학기 영어학부 AI&English 세부전공을 개설했다. 또한 2025학년도 1학기에 문을 여는 일반대학원에도 AI&English 전공을 마련, 해당 전공의 학부 졸업 이후 석사 과정 연계 진학을 통해 더 깊은 학문의 연구도 가능하게 됐다.

#### ◆실무 역량 초점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사이버한국외대는 기술혁신에 따른 급속한 사회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시행한다. 마이크로디그리는 기존의 학위과정에 비해 훨씬 적은 이수학점으로 구성돼 자신이 원하는 관심사에 맞춰 보다 빠르게 해당 과정의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단위 전공제도다.

아울러 개교때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새로운 교육 모델의 개척에 동행해왔다. 특히 2018년 한국외대와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로는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인적·물적 자원 교류의 다각화와 활성화를 통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양교간 학점교류를 통해 정규학과와 방학기간 중 집중학기(계절학기)에 양교 학생들이 상대교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학생맞춤형 장학제도도 구축했다. 교내 장학제도인 'Need Based 장학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내달 16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1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정원 내 일반전형 1916명과 위탁교육 협약 체결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위탁,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 위탁, 학사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사편입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등 정원 외 특별전형 2740명으로 총 4656명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민 "경희궁·한양도성 완전 복원해야" 서울교육청, 학생·학교 중심 조직개편 단행

###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에 제안 접수 역사 가치 지닌 곳 우선적 복원 요구 시, 예산 규모 커... 장기과제로 검토

서울시민들이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경희궁과 한양도성을 조선 시대 때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복원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경희궁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 재원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접수됐다.

청원인 A씨는 "경희궁은 그 역사가 매우 깊고, 서쪽도를 보면 당시 매우 큰 궁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는 수변공원은 잘 만들면서 경희궁 복원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을 경희궁 복원에 우선적으로 편중시켜 달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외국인들이 궁궐을 보러 오지 자기 나라에도 널린 공원이나 정원을 보겠냐"고 지적했다.

그간 시는 경희궁지 정비를 위해 승정전, 자정전, 태령전 등의 건축물을 복원했으며, 국가유산청 및 관리 단체(종로구청, 서울역사박물관)와 경희궁지 보존을 추진해왔다.

시 문화유산활용과는 "경희궁지 내부와 국립기상박물관·서울시교육청 부지, 돈의문박물관 마을 등을 역사문화공원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며 "아울러 경희궁 추가 복원을 위해서는 공공시설 이전,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고, 막대한 복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장기 과제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양도성을 본래대로 되살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인 B씨는 "조선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한양도성은 우

리 선조들이 고된 부역을 하며 피땀 흘려 완성한 도성"이라면서 "반드시 100%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이간수문 구간, 월암 근린공원 구간, 회현 아동광장 구간, 인왕·백악·낙산·목멱산 구간 등에 대한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현재 혜화동 전시 안내 센터 주변(옛 시장 공관) 위험 구간 성벽 해체 복원 공사, 한양도성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인왕·백악곡성 구간 성벽 해체 보수 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한양도성의 역사성을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한양도성은 북한산성, 탕춘대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의 자문 기구인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이코모스)로부터 예비 평가 결과를 받았다. /김현정 기자 hjk1@

### 효율적 정책 추진, 안전관리 강화 앞장 협력·소통 등 3대 원칙 기반 부서 개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과 학교 중심의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협력·소통 ▲포용·안전 ▲효율·집중 등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의 '1실 3국 26과·담당관' 체제는 유지하되, 부서 간 중복업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 중심 개편으로 추진됐다.

개편되는 부서는 ▲정책기획관 ▲안전총괄담당관 ▲학생맞춤지원담당

관(前 참여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前 대외협력담당관) ▲창의미래교육과(前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학생역량·혁신교육과(前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민주시민교육과(前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총 7개 부서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관' 내 '학교업무개선팀'이 신설된다. 통학로 안전에 대한 대내외 관심과 중요성을 반영해 '안전총괄담당관' 내 '학교안전'과 '통학안전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통학로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폭설피해 복구에 총 677억 투입

### 피해 소상공인에 300억 지원

경기도가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1억5000만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 원을 더해 총 677억5000만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있다.

따라서 도는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

해를 입은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도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게 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5 | 해질 / 17:14

12월 9일 (월)  
음력 : 11월 9일

수도권 날씨  
-3 ~ 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7/5, 동두천 -6/5, 가평 -7/6, 파주 -7/5, 서울 -3/6, 양평 -5/5, 인천 -2/6, 수원 -2/5, 용인 -2/5, 평택 -4/6

백령도 3/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바이든, 시리아 반군 승리 선언에 "면밀히 주시"  
▲트럼프-젤렌스키 회동...우크라이나 중전 속도 불나 /사진 뉴시스

▲애플, 퀄컴과 헤어진다...내년 자체 모델 스마트폰 출시  
▲日언론, "탄핵 무산...韓 정치 혼란 계속될 듯"



▲탄핵표결 무산에 美, "민주적 절차 제대로 작동해야"  
▲노트르담 대성당, 화마 딛고 5년 만에 재개관 /사진 뉴시스



빠르고 신선하게  
대형마트  
'직송' 경쟁 가세  
니



Life

뷰티업계  
AI 활용한  
맞춤화장품 확대  
L2



# “떡방·초절식 그만... ‘건강한 체중’ 위해 생활패턴 돌아봐야”



새벽을 여는 사람들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  
이규래 원장

“아직도 비만은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방송 매체 등은 올바른 식사 습관을 말하기보다는 말초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규래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장이 사회를 향해 목직하게 던진 비판이다. 대한비만학회 회장을 맡는 등 비만 분야의 권위자로 통하는 이 원장은 한 사람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가족과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체중을 단순히 ‘많다, 적다’라는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 ◆ ‘균의관’에서 ‘대한비만학회 회장’으로

한의학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 원장은 아프리카의 봉사자로 기억되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동경하며 의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가 비만학을 접하게 된 것은 균의관 복무기간의 인연으로부터다. 이 원장은 걸프전에 차출돼 다녀온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재활의학과 친구로부터 스포츠 의학이라는 책자를 소개받았고, 그렇게 비만학을 독학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브란스병원 임상강사를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박사 과정 중 비만 관련 운동 분과에 대한 생리학을 연구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 현실은 운동과 비만에 관심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1992년 이후부터는 대한비만학회에서 활동하며 실제적으로 환자에 대한 접근이 시작했다. 이 원장은 당시를 학업과 실제 환자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대한비만학회는 학술적인 연구에 집중함과 동시에 국내 의사들을 교육한다. 영양, 운동, 수술 등에 대한 다양한 치료 분야를 교육하고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1993년 강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비만 분야에 집중했고, 이제는 비만학회의 원로로 남게 됐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참전했던 걸프전 당시였다고 한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며 기러기 생활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스쳐간다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그런 시절들로 인해 비만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며 “위기였던 그 시절들이 오히려 ‘반전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 ◆ 건강한 체중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 건강한 지식 必... ‘셀프 모니터링 중요’

이 원장은 건강한 체중을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결국에는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체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단면적으로 체중



이규래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장  
주요 약력

- ▶1962년 출생
- ▶서울 휘문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가정의학교실 강사
- ▶강남 미즈메디 병원 과장
- ▶가천대학교 가정의학과 주임 교수
- ▶진 대한비만학회 회장
- ▶진 대학 가정의학회 홍보 이사
- ▶진 대한노화방지 의학회 홍보 이사
- ▶진 휴온스 사외 이사
- ▶현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장
- ▶현 대한비만학회 자문 위원

지난 2019년 8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국제비만및대사중추학회 & 아시아-오세아니아 만학술대회(ICOMES & AOCO)’에서 이규래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



균의관 복무 때 비만학 접하며 독학  
1992년부터 ‘대한비만학회’서 활동  
올바른 지식 알리는 비만분야 권위자로

건강한 체중 위해 가족·사회역할 중요  
자신의 생활 관찰, 비만 예방의 첫걸음

떡방 등 건강 해치는 식습관 유행 문제  
남과 비교하는 한국문화도 ‘걸림돌’

이 ‘많다, 적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 각자의 사정들이 신체의 균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건강한 체중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건강한 지식으로 세상의 그릇된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특히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과거 한 아버지가 두 딸을 데리고 이 원장을 찾아왔다. 당시 자매는 20대 후반 정도였고, 아버지는 그에게 아이들이 과체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왔음에도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 원장의 평가였다. 그는 “결국 체중이 늘게 된 원인은 아버지의 무관심”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가정보다는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부모 가정에서 컸던 아이들은 스스로 생활 패턴과 음식을 챙기면서 불건강한 루틴을 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

인 식사, 운동,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체중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이 우선돼야 한다는 부연이다. 비만 예방법 역시 체중계보다 체지방 측정계를 준비해 일정하게 스스로 측정하는 것,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게 먼저고,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핵심 내용”이라며 “여러 가지 약제나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한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이 추천한 것은 ‘식사 일기’다. 이는 행동요법, 행동수정치료의 하나로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내내 쓰는 것을 추천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자기감시, 셀프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의 하루 루틴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저역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각종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며 “변하기 위한 생각을 올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관찰하는 습관, 식사 일기를 쓰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 ◆ 한국의 ‘체중 강박’ 개선돼야... 잘못된 양극화 심화

이 원장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과거 MBC 프로그램 ‘이수만·장윤정의 생방송 아침’ 내 ‘비만스쿨’ 코너에서 조력자로 출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체중이 80kg가 넘는 여성 약 50명을 선정해 12주간의 다이어트 작전을 펼쳤다.

당시 이 원장은 모순된 두 모습이 미디어에 동시 노출된다는 것을 주목했다. 예를 들어 한 쪽에서는 ‘떡방’ 등을 통해 시청물

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반면,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다이어트 약, 체중 압박 등을 취재해 사회적 문제나 법적인 징계를 말하는 모습이다.

‘떡방’ 문화와 관련된 또 다른 일화도 있다. 과거 독일의 공영방송인 ‘ZDF’가 비만학회를 통해 우리나라 식습관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다고 한다. 독일 공영방송 등에서는 건강한 식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떡방으로 인해 불건강한 식습관이 유행하고, 미디어에서도 이를 방관하며 부추인다고 본 것이다.

‘체중 강박’도 한국 문화권의 문제로 꼽았다. “얼마 전 유행한 저탄고지 식사,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등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그저 과급력에 따라서 유행되는 것이 한국의 문화”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만났던 환자 중에서 거식증으로 고생하던 대학생이 있었다. 명문대에 입학했던 그 학생은 1학년을 지낸 뒤 바로 단식원에 가기 위해 휴학했다고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강박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원장이 만난 대학생,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프아(찬성을 뜻하는 Pro와 거식증을 합친 말) 등 저체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초절식을 강행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원장은 “과거보다 더욱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 더 불행해지는 이들을 자주 보고 있다”며 “어쩌면 자기 모습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한국의 문화가 이를 더욱 조장하는 듯하다. 각자의 장점을 돌아보면서 사소한 부분들도 감사로 나누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신하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행업계, 게임 사태로 예약 취소 이어져
- ▲펜싱 전하영, 오를레앙 사브르 그링프리 우승 /사진 뉴시스

- ▲피겨서민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은메달 쾌거
- ▲케이블TV-CJ온스타일 ‘송출 중단’ 공방 격화



- ▲발달장애인들, 18km 한양도성 순성완주 성공 /사진 뉴시스
- ▲‘옛 노래를 새롭게’... 서울우리소리 박물관, 현대식 민요 공개